

◇군 앙심선언 수배자의 편지

“우리가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분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분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주장은 70만 병사에게서 그리고 4천만 민중에게서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그들을 몸소도 사랑합니다. 너무도 사랑하기에 솟구치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천명의 민중을 학살했던 그들, 신성한 국부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군인들을 차츰차츰 자신의 사병으로 만들어 버린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무기는 바로 분노-앙심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문명정부가 들어서고 개혁의 물결이 우리들의 가슴 깊숙히서부터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영삼정권은 자신의 정권을 안정화하기 위해 제한적인 개혁을 하고 있을 뿐이며 실질적인 내용은 거의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에, 앙심선언의 정당성을 알리고자 벌써 일주일 넘도록 농성을 하는 우리 8명의 수배자들은 한국군의 민주화를 쟁취하며 앙심선언을 했습니다.

이중수(사88), 이동익(전산원 88학번) 학우는 군복무중 지난 91년 앙심선언을 한 후 수배를 받아 현재 기독교 회관에서 이의 해제를 요구하며 농성중이다.

도서관 분실사고... 불신감 조성 '역지사지' 태도 가졌으면

다음주부터 각 학교별로 기밀교사가 시작된다. 이번 학기 마지막 시험을 대비해 온방골 1만 학우는 너나 할 것 없이 도서관을 향해 몰릴 듯이 밀려들 것이고 새벽잠을 설치거나 겨우 자리를 잡는 등 도서관자리 잡기 경쟁이 또다시 치열해 질 것이다.

열린글터 독자 여러분의 생각이 담긴 글, 사진, 만화를 받습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생활문화운동 긍정적 대중적 참여가 과제

온방골 생활문화운동이 본격화 되면서 여러가지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한참동안 문제로 대두되었던 교내 차량들의 난폭 운행등으로 교통사고를 빚는 등 학생들이 다니는 사례까지 발생해 이를 하 루랄라 장비해야 한다는 학우들의 의견이 어느때 보다 높게 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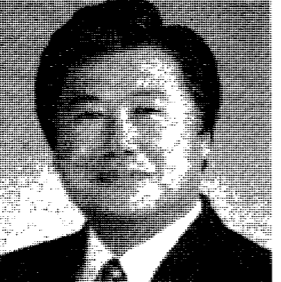
매체 비평

지난달 31일부터 학생회와 학생복지위원회가 실시한 교내 택시 진입을 막는 자보부작, 교문 앞에서 택시통제 등의 운동이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어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호응을 같이했다.

또다시 고개 든 학생운동 탄압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교내에서 제기 한국대학총학생회 연합 출범식이 열렸다.

동문칼럼



한때 나의 줄져 외치는 고난보다 강하다 가 장안의 화제작으로 베스트셀러가 된적이 있었다. 그 책을 읽어본 인연으로 수월한 많은 사람들이 내 사무실과 집으로 찾아와서 생의 아니게 나를 자기들의 인생 상담자로 만들기 일수였다. 그때 나는 흔히 뱀목이야기를 전해 주곤했다.

의지는 고난보다 강하다

달해야 될 목표를 향하여 거슬러 가야하는 의지는 고난보다 강하다. 의지는 삶의 지표를 생의 마디마디에서 기억해 주기를 당부 하곤 했다.

매체 비평

“80년 5월 광주유혈은 이 나라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되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13돌을 앞둔 지난 5월13일 김영삼대통령은 특별담화문을 발표했다.

5.18 관련 보도

“80년 5월 광주유혈은 이 나라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되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13돌을 앞둔 지난 5월13일 김영삼대통령은 특별담화문을 발표했다.

목욕골

- 6월2일 훈형오빠(회계학과 93)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불대 정미83
6월7일 경영학과 3년 영준이형 귀뻘진 날, 축하해요. -기림
6월2일은 국교과 기영동이 승진이 귀뻘진 날이네요. 승진인! 생일 축하해!! -나야
6월3일 풍기타 음악동아리 '몽계구름'에서 공연을 합니다. 많이 많이 와서 구경해 주세요. -몽계구름
25일 밤에 형사법학회 주점에서 현금 심오만원과 학생증을 분실하였습니다. 즉시 주신 분은 법과대학 생활실에 꼭 가져오시면 사해하겠습니다. -법2 고준혁
31일 여학생 휴게실에서 빨간지갑을 분실하였습니다. 발견하신분은 신분사로 연락바랍니다.
6월25일 6월10일 목요일, 오후 4시 경각원에서 대한불교인재양성회 발대식을 갖습니다. 인재발성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대한불교 인재양성회
R/C 회원들 나 일하고 있다. 왜 이리 정신을 못 차리는 건지 도저히 알길이 없다. 구이나 구삼이나 어디에 정신을 빼놓고 다니는지 많은 얘기 필요없고 '백' 한마디 '정신치러 R/C'들
6월 22일 관경과 92학년 원수 같은 일민이와 계수의 생일입니다. 축하해 줍시다. -관 경과 슈퍼맨

동학 광장

- 6월2일 악바리 폰의 생일입니다. 동기 민준이와 형들 모두가 정말 정말 축하한다고 수
6월4일은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 수정=개구리의 생일입니다. 축하합니다. -수교과 일동
새만 클래스 악동 여러분! 기말고사 기간이 바야흐로 다가왔구나. 공부하느라 처진어깨가 안타깝구나. 힘들어도 언제나 맑은 웃음 잃지 말자. 그리고 열심히 노래하자. 화이팅! -92학번 윤요양
한문과 정떨이언니 지은죄가 많아 지면으로나마 사과하고 빗발치며 줄이든 놀라게요. 열심히 사시길 바라며 -옛날 방울 찬
경북대학교 조경학과 정아와... 만남이 좋은 추억이 되기를 바라며... -조 경1 재호
우리모두 김영삼씨의 신한국 농촌을 보라. 그리고 열심히 말하라는 농민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농활 갑시다. 6월25일에 떠납니다. -농활 준비위 볼

온방골

- 6월2일 악바리 폰의 생일입니다. 동기 민준이와 형들 모두가 정말 정말 축하한다고 수
6월4일은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 수정=개구리의 생일입니다. 축하합니다. -수교과 일동
새만 클래스 악동 여러분! 기말고사 기간이 바야흐로 다가왔구나. 공부하느라 처진어깨가 안타깝구나. 힘들어도 언제나 맑은 웃음 잃지 말자. 그리고 열심히 노래하자. 화이팅! -92학번 윤요양
한문과 정떨이언니 지은죄가 많아 지면으로나마 사과하고 빗발치며 줄이든 놀라게요. 열심히 사시길 바라며 -옛날 방울 찬
경북대학교 조경학과 정아와... 만남이 좋은 추억이 되기를 바라며... -조 경1 재호
우리모두 김영삼씨의 신한국 농촌을 보라. 그리고 열심히 말하라는 농민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농활 갑시다. 6월25일에 떠납니다. -농활 준비위 볼

열심히 합시다

- 6월2일 악바리 폰의 생일입니다. 동기 민준이와 형들 모두가 정말 정말 축하한다고 수
6월4일은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 수정=개구리의 생일입니다. 축하합니다. -수교과 일동
새만 클래스 악동 여러분! 기말고사 기간이 바야흐로 다가왔구나. 공부하느라 처진어깨가 안타깝구나. 힘들어도 언제나 맑은 웃음 잃지 말자. 그리고 열심히 노래하자. 화이팅! -92학번 윤요양
한문과 정떨이언니 지은죄가 많아 지면으로나마 사과하고 빗발치며 줄이든 놀라게요. 열심히 사시길 바라며 -옛날 방울 찬
경북대학교 조경학과 정아와... 만남이 좋은 추억이 되기를 바라며... -조 경1 재호
우리모두 김영삼씨의 신한국 농촌을 보라. 그리고 열심히 말하라는 농민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농활 갑시다. 6월25일에 떠납니다. -농활 준비위 볼

그리고 ...

- 6월2일 악바리 폰의 생일입니다. 동기 민준이와 형들 모두가 정말 정말 축하한다고 수
6월4일은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 수정=개구리의 생일입니다. 축하합니다. -수교과 일동
새만 클래스 악동 여러분! 기말고사 기간이 바야흐로 다가왔구나. 공부하느라 처진어깨가 안타깝구나. 힘들어도 언제나 맑은 웃음 잃지 말자. 그리고 열심히 노래하자. 화이팅! -92학번 윤요양
한문과 정떨이언니 지은죄가 많아 지면으로나마 사과하고 빗발치며 줄이든 놀라게요. 열심히 사시길 바라며 -옛날 방울 찬
경북대학교 조경학과 정아와... 만남이 좋은 추억이 되기를 바라며... -조 경1 재호
우리모두 김영삼씨의 신한국 농촌을 보라. 그리고 열심히 말하라는 농민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농활 갑시다. 6월25일에 떠납니다. -농활 준비위 볼

아르바이트

- 중양일보 을지저에서 신문보급 사람모집
기간: 6월 1일부터 3일까지
대상: 남녀 3명
수당: 21만원
연락처: T.274-0893 문정구
가인저에서 도매 배달할 사람모집
근무시간: 8시 30분부터 18시까지
수당: 53만원
대상: 운전면허 소지한 일부대, 휴학생
연락처: T.202-3344 유인식
한국부채에서 작업보조할 사람모집
근무시간: 9시부터 18시까지
수당: 일당 22만원
대상: 남1명
연락처: T.268-5421 최갑목
아이 컴패니언에서 음료수 시용할 사람모집
기간: 6월 19일부터 7월 18일까지
근무시간: 9시부터 19시까지
대상: 남30명, 여60명
수당: 63만원
연락처: T.555-9078 국제정
한라프리카 의류판매 및 광고물 배부 남-여학생 20명 5월 22일부터 1일 18,000원
연락처: 41-4890, 749-5142
포항 고려학원(수학과목 강사) 여학생 1명(저녁 7시~10시 근무) 월 450,000원
수학과목 1~4급 3명
대상: 주유수 남자, 이안 7시간 근무, 숙식제공(출퇴근 가능) 월 450만 원
위치-포항-경주 중간 전화: 762-8931-2

흥비니 장터

- 6월2일 악바리 폰의 생일입니다. 동기 민준이와 형들 모두가 정말 정말 축하한다고 수
6월4일은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 수정=개구리의 생일입니다. 축하합니다. -수교과 일동
새만 클래스 악동 여러분! 기말고사 기간이 바야흐로 다가왔구나. 공부하느라 처진어깨가 안타깝구나. 힘들어도 언제나 맑은 웃음 잃지 말자. 그리고 열심히 노래하자. 화이팅! -92학번 윤요양
한문과 정떨이언니 지은죄가 많아 지면으로나마 사과하고 빗발치며 줄이든 놀라게요. 열심히 사시길 바라며 -옛날 방울 찬
경북대학교 조경학과 정아와... 만남이 좋은 추억이 되기를 바라며... -조 경1 재호
우리모두 김영삼씨의 신한국 농촌을 보라. 그리고 열심히 말하라는 농민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농활 갑시다. 6월25일에 떠납니다. -농활 준비위 볼

입시부정 학부모 명단 공개를 둘러싸고 최근 교육부가 보인 행태는 아직도 구태를 벗어 나지 못한 교육부 고관료들의 무사안일주의를 여실히 보여준다. 또 모영기 전대학장책실장이 외국으로 도피하고, 김상구 현대학장책실장도 뚜렷한 이유없이 사표를 제출한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교육부와 사립대학의 유착 관계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소문을 확산하게 하며, 더욱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이 얼마나 시급한 일이며 대학비리·부정의 방지책인 가하는 점을 역으로 드러내 준다.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 방향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자.

인사관련부정 근절과 민주적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한 개정사항

교수·직원의 공정한 인사는 사립대학 비리 척결과 발전의 초석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교수·직원채용시 금품수수등의 비리는 근부중에도 원칙의식처럼 교수·직원을 따라 다니면서, 부정·비리의 확대재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것이다. 더구나 전장에서 직원을 공채하는 대학이 거의 없으며, 그 역사는 매우 짧은 사실은 직원이 대학의 부정·비리에 연루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1)교수·직원의 임면은 인사위원회의 제청과 교수협의회의 의결로 학교의 장이 행해야 하며 2)인사위원회의원은 교수협의회의에서 선출하며 3)총·학장은 교수협의회의에서 직선해야 하며(물론 이때 직원과 학생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은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사진의 친인척은 학교의 장이 될 수 없게 해야 한다. 총·학장의 직선은 학교장직 및 재단과 학교운영위원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며, 인사위원회의 설치에 인사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특히 교원은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기간을 정한다는 조항을 폐지하여, 재임유예의 병제를 막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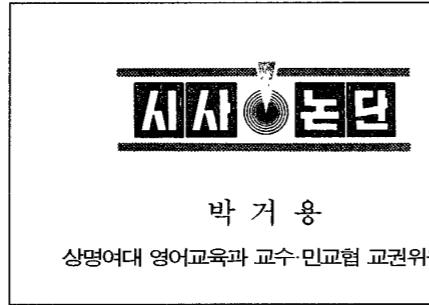
재정관련부정 척결과 공개적 예산 운영을 위한 개정사항

인사의 공정화와 함께 대학의 자치적 운영을 가능케하는 것이 재정 및 운영의 공개화와 엄격한 감사이다. 사실 대학비리의 모든 핵심은 돈을 둘러싸고 자행되고 있다는 최근의 대학부정입찰 및 운영비리사건을 볼때, 공개재정은 무엇보다도 파행적인 대학운영을 막는 필수조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1)현재의 유명무실한 예산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실질적 기능을 갖는 예산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회는 교수협의회의에서 선출해야 하며, 2)예결

산은 예산위원회의가 심의하고 교수협의회의가 의결하여 공개해야 하며, 특히 결산공제시 공인회계법인의 감사를 거치는 외부감사제를 채택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재단의 징계권등 남용방지과 교직원들의 신분보장을 위한 개정사항

현 사립학교법은 징계위원회 위원을 재단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의 결반을 법인의 이사들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합리



박거용
상임여대 영어교육과 교수 인교협 교원위원장

립대학이 대학을 영리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게다가 강사들의 열악한 강사료와 불안한 신분은 더욱 강사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시급함을 말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강사들의 신분보장과 연구기능보장을 위하여 임용계약등을 포함한 1)대학 강사의 교수 및 연구직인 개선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하며 2)교원의 법정정원 확보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사립학교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대학교육의 정상화는 교수기능의

대학자율과 민주적 의사교환 및 결정기구인 교수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개정사항

교수협의회의는 학생들의 총학생회와 마찬가지로 대학사회의 꽃이다. 교수협의회의는 가능한 보외교수를 제외한 평교수(이때 대학의 규모에 따라, 평교수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로 구성되어, 실질적 대학의 모든 중요한 사항(인사, 재정, 징계뿐만 아니라 교육방침까지)을 의결해야 한다. 이와 같은 민주적 의사교환 및 결정기구인 교수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1)유선 현재 이른바 대학평의원회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2)교수협의회의를 의결기구·공적기구로 법적·제도적 차원에서 명문화시켜야 한다. 아울러 교수협의회의와 직·간접, 총학생회간의 협력체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현행사립학교법은 사학의 자율성을 대학의 자율성이 아니라 재단법인의 자율성으로 오해하고 있으며, 그럼으로써 사립학교법 개정안 제안이유서에서 밝힌 교직의 안정은 말할 것도 없고 사학의 건전한 발전까지 그 근본에서부터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입시부정 회오리 속에서 우리가 얻은 교훈처럼, 사립학교

법의 민주적 개정은 대학사회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대학의 자치는 대학의 모든 구성원(재단, 교수, 직원, 학생, 동문, 학부모등)이 학교의 모든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심을 기울여야만 성취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테면 학생도 교육법에 학생의 권리조항을 신설하여서 학생권과 교육 및 학교운영에 관한 의견제시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자치활동등 보장받아야 하고, 징계절차에서 변론할 권리까지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유령처럼 거론되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 논쟁의 한기둥을 구성하는 프랑스 철학자 리오타르의 「포스트모더니의 조건」이란 저서가 캐나다케백정부 대학협의회 회장의 요청에 의해 최 선진 사회의 지식의 조건에 대한 보고서 형태로 쓰여졌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대학이 일방적인 사회적 지식을 직접적인 생산력으로 전환하는 주체라는 사실을 더욱 실감하게 된다. 지식이 주된 생산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경향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예측을 현실화 할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언제까지나 친민주본주의적 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전근대적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에만 매달려야 하는가?

모든 대학구성원 참여해야

사립학교법의 올바른 개정방향

성을 잃은 재단측의 징계권 남용은 교수들의 교권을 침해하며 나아가서 교원의 신분도 위협하고 있다. 게다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무조건 직위해제를 하도록 되어있는 현 사립학교법은 재단에 비판적인 교원에 대해 고소, 고발을 남용하는 결과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죄판결 이전에는 무죄라는 법의 정신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수협의회의에서 선출해야 하며 2)교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심의와 교수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3)직권면직은 그 사유를 제한 하여야 하고 인사위의 심의와 교수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하고 4)마지막으로 직위해제와 재징계에 관한 조항은 전면 삭제되어야 한다.

내실화없는 이투위될 수 없는 것이다.

사학재단 이사회의 전횡금지과 공공교육개념 확장을 위한 개정사항

현행 사립학교법에서는 재단의 자율체제와 새우체제가 가능하며, 나아가서 학교의 사유재산화까지도 가능한 셈이다. 이러한 재단의 전횡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1)이사중 1/3이상과 감사인원을 교수협의회의에서 추천해야하며 2)이사회의는 친족 관계에 있는 이사의수가 1/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하고, 동시에 이사가 중 1/3이상은 교육경력이 3년이상(현행은 1년이상)인 자로 하여야하며 3)총·학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학교회계의 결산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의 가능에서 삭제하는 방향으로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정은 교육의 실질적 주체인 총·학장과 교원에 자율성을 확보해 주는 방법이며 동시에 공공교육개념확장을 위해서 학교운영과 소유의 분리화까지 도달할 수 있는 개정방향이기도 하다.

교원수 부족방지과 대학사건감사의 법제도적 신분보장을 위한 제정사항

대부분의 사립대학은 교원의 법정정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여백을 강사들에 의존하여 해결해 오고 있다. 강사들이 대학장의 약 50%가량을 전담하고 있다는 사실은 사

사설

재단의 개혁의지 필요한 때

총학생회가 지난 1일 재단에 전한 최종 답변요구서는 이제 학내사태가 장기화된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현재 재단은 사태해결을 수습차원에서 무마할 어떤 명분도 갖고 있지 못하다. 그 이유는 학내구성원 모두가 학생들의 교육관계자들에게 대한 비리폭로이후 뒤흔힌 해명을 하지 못하는 재단에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교수회는 지난 1일 성명서를 채택하고 조속한 진상규명을 재단에 촉구했다.

이번 교수회의 성명서 발표는 현 학내사태 전개에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학생들의 요구에 일정 정경하고 본격적인 문제 해결을 회피하고 있는 재단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것은 사태수습만을 위해 학생들의 자 재단을 촉구했던 예년의 교수회 모습과는 다르다. 더군다나 학교당국과 재단에 사태해결을 막기위해 학교행정의 공개와 원칙을 준수할 것과 이번 사태를 학교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은 적극적인 의지의 발현으로 보인다. 이것은 교수회 성명발표이후 총학생회도 이에 공감하고 교수회가 제안한 것과 맞아떨어지는 2일 점거농성을 해했다.

지금까지 29일동안의 점거농성이 계속되는 중에도 미온적 반응만을 보였던 구성원들의 이같은 발전적 사태해결노력은 향후 전면적인 재단정 화운동이 전개될 것임을 전제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점거농성해제이후에도 학생이상총회를 상정하고 재단에 마지막 자정을 요구하는 총학생회의 입장표명도 앞으로의 장기적인 투쟁이 될 것임을 감지하게 한다.

이같이 모든 학내 구성원들이 요구하는 재단 비리 인사들에 대한 진상 규명과 공감할 만한 후속처리 촉구는 이미 큰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단은 학내구성원들의 의견을 도외시한 자중수를 두 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는 결국 학생들의 전면적인 재단혁신투쟁만을 가져올 것이며 발전 적 논의는 차후로 미뤄지는 결과가 될 것이다.

학교당국에서조차 개혁사정특별대책위가 발족·가동되고 있는 마당에 재단의 동공발전의 근본취지가 배어있는 결단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 곧 재단은 학내구성원들의 중론에 의해 재단의 개혁의지를 시험 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총학생회가 지금까지 확보한 비리와 관련된 재단관계자들에게 대한 자제선상규명과 이후 처리의 확대를 오는 4일까지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석림회에서 제기한 중국중용을 위한 좌담회가 오는 3일도 예정돼 있다. 더이상 재단은 묵묵부답만 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더구나 총학생회측은 답변요구서한까지 재단의 개혁의지 표현이 없을 때는 학생회 최고 의결기구인 학생총회를 통해 전면적인 재단 이사퇴진 투쟁을 공언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재단이 사태의 본질 해결 을 회피할 수 록 학내과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개교 90주년을 맞게 되는 동국 발전사업은 악화일로에 놓이게 될 것이다.

각 구성원들은 재단의 분명한 자제 정화하 현 학내 사태해결이후 나름 의 동공발전 계획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준비속에 농성을 해제하고 재단의 태도를 기다리는 학생들을 비롯한 구성원들의 시선은 재단에 쏠려있다.

다시금 동국을 악화일로에 견제하지 말자. 지금 재단이 겪고있는 해결 의 열쇠도 감시뿐이다. 재단은 학내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해법과 규 명을 하는 것만이 향후 더욱 악화될 학내 사태해결을 막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학생증 재발급 왜 연기되었나

학생증 없는(?) 학생

혼란만 초래하는 학사행정 근절돼야

중앙도서관(관장=김보환·경향행 정학) 전산화 작업의 일환으로 전개 되어 온 재학생들의 학생증 교체 발 급이 오는 10일까지 신장지에 한해 일시분 지급될 예정이다.

당초 4월중으로 발급될 예정이었 던 재학생 학생증은 계속적인 시행착 오로 인해 재차 연기되어 오다가 현 재 마무리 작업을 남겨두고 있어 비로소 그동안 미루어져 왔던 도서관 출입자 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도서관은 지난 12월 4천6백여만원 의 예산을 들여 여러 부수 공사와 함 께 사무직리의 효율성 증대와 출입자 관리, 도서관을 전산화해 위해 바코

드(bar-code)를 이용한 전산화 시스 템을 도입한 바 있으며 이에따라 학 생들은 바코드가 찍힌 새로운 형태의 학생증을 발급받아야 했다.

그런데 이렇게 학생증이 재발급 되 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과 착오가 생겨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신입생들의 경우는 이미 발급되었 던 학생증이 본교 전산시스템과는 적 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재발급이 불가피하게 됐다.

신입생 학생증의 앞면을 보면 바코 드가 찍힌 곳이 파란색으로 덮여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바코드를 읽어내는 바코드 리더(reader)가 윈

본의 복사품까지 같이 읽어내므로 복 사방지를 위해 사용된 것이다. 그러 나 본교의 바코드 리더는 빨간색이 쓰인 것을 읽어내지 못하는 것으로 판관색으로 된 것은 읽지 못한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 구학생증을 사 용하고 있는 반면 몇몇학과에서는 구 학생증을 수거해감으로써 이 또한 혼 란의 원인이 되고있다.

한편 이렇게 학생증 교체 발급이 오래 걸린다면 다음학기 복학을 하게 될 학생들 문제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복학생들의 경우 재학생증 을 교체받는 동안 만일 도서관 출입 통제가 이루어 진다면 도서관 사용에

앞으로 완전한 도서관 출입통제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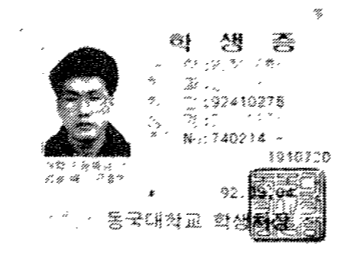
재학생들의 경우 지난 3월13일부 터 장학과(과장=황재일)에서 학생증 재발급 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 구학생증을 사 용하고 있는 반면 몇몇학과에서는 구 학생증을 수거해감으로써 이 또한 혼 란의 원인이 되고있다.

한편 이렇게 학생증 교체 발급이 오래 걸린다면 다음학기 복학을 하게 될 학생들 문제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복학생들의 경우 재학생증 을 교체받는 동안 만일 도서관 출입 통제가 이루어 진다면 도서관 사용에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이며 앞에서 언 급한 신입생 학생증 문제와 이를 복 학생들을 고려해 출입자 통제를 미룬 다해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타대학의 경우 이미 전산화 작업이 완료된 곳이 많아 본교에서의 도서관 실과 열람실 부족등 여러 문제들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과정이 다 끝나야 지 금 계획중인 도난 방지 시스템등 다 른 작업들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볼때 학생증 재발급에 따른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결이 조속히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작년까지 사용되던 학생증



◇바코드가 부착된 새 학생증

東國漫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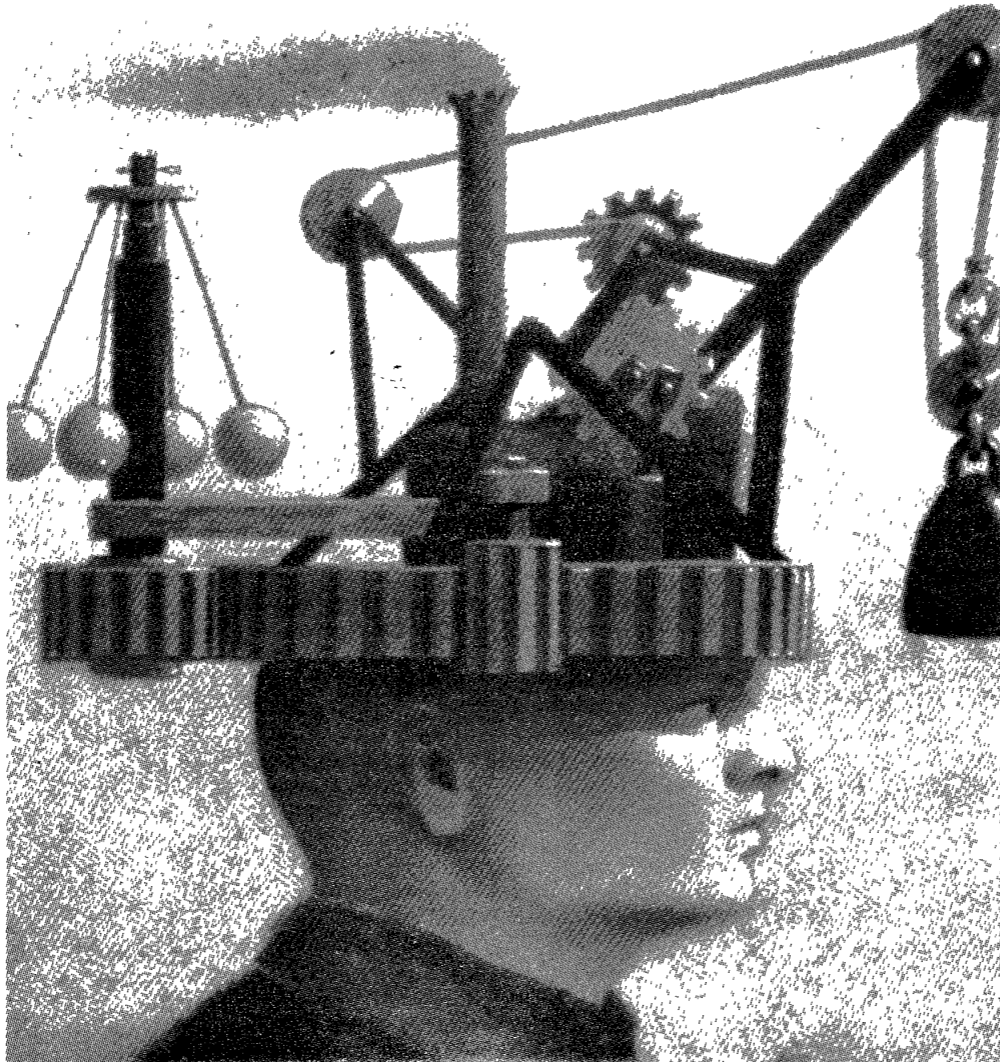
김상남



<東>

국민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기업-삼성

모든 건설의 원점은, 인간



제2회 「건설논문상」 현상 공모

삼성종합건설은 건설분야 기술력향상과 저변확대를 통해 국내건설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건설논문을 현상공모합니다.

- | 응모요강 |
|---|
| 1. 참가대상 ● 각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전공불문) |
| 2. 응모기간 ● 1993. 8.20 ~ 8.31 |
| 3. 응모주제(5개중 택일)
● 국민적기업으로서 건설업체의 바람직한 역할
● 부실시공 및 건설해 방지에 대해
● 건설기술개발 문제점과 산·학·연 협력방안
● 건설업의 국민경제에 대한 영향 및 정부의 바람직한 건설정책
● 건설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방안 |
| 4. 응모요령
● A4 용지 30~40매 내의 분량으로 워드프로세서용 작성 제출(원고용지나 학회용지 표시된 리포트용지는 사용불가) |
| 5. 시상내역
● 최우수상(1명) : 상패 및 상금 300만원
● 우수상(3명) : 상패 및 상금 200만원
● 장려상(6명) : 상패 및 상금 100만원 |
| 6. 수상자 특전
● 당사 인사지원서 서류전형 및 평가시험 면제
● 우수상 이상 입상자 일반 선진건설사 견학기회 부여(3박 4일) |
| 7. 작품심사
● 1차 : 삼성종합건설 자체심사
● 2차 : 삼성종합건설이 위촉하는 각 분야 권위자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
| 8. 입상지표료 ● 1993. 10. 9 입상자에게 개별통지 |
| 9. 시상 ● 1993. 10. 18(삼성종합건설 창립기념일) |
| 10. 제출처
● 서울 중구 서소문동 58-9 중앙빌딩 삼성종합건설 전략기획실 기획팀
(중앙우체국 사서함 8526, 우편접수가능) |
| 11. 기타
● 응모작품은 다른 진행분야나 논문집등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함.
● 국내외 저사나 논문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원문을 밝혀야함.
● 입상논문의 저작권은 삼성종합건설에 귀속되며 응모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삼성종합건설 전략기획실 기획팀으로 문의하십시오.(TEL : 727-0301~2) |



◇ 군 민주개혁 어떻게 가능한가

군, 정권유지 도구아니다

민주화 양심선언 군인 수배 해제돼야

군대는 국군의 복무규정에 의하면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국토를 수호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국민의 보호해야 될 군대가 지난 33년동안 군부독재라는 정권과 인맥 유지를 위해 사용되었다는 일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더욱이 70년말 전두환정권 시절 제정으로 만들어진 지금까지 사내거리를 확보하는 전경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는 않은이들을 강제 자살하여 군사정권 유지를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김영삼 새정부의 탄생과 더불어 내전 56공판정 선언은 7년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양심선언 군인-전경 수배자들의 요구사항과는 개혁이라는 이름에 맞지않게 느껴지는 점이 많다.

첫째, 12·12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화한 진상을 밝히는 것이다. 또한, 이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둘째, 장권유지의 방해막인 전경은 해체되어야 하며, 전투경찰실치법 역시 폐지되어야 한다. 대간첩작전을 주입으로 해야 할 전경이 막상 하는 일은 시위에 나선 학생들과 시민들을 향해 무력으로 다지는 일이다. 이런 정부의 발상으로 미루어보면 시민과 학생을 간첩으로 보고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결론에 다다른다.

셋째, 과거 군사정권에서 자행되었던 군내의 의문사와 조직사건에 대해 정부는 철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서울대 민주학생활동가 조직' '청주대 자재대' '인양직지 자주학' '생명령' 등 기록부에서 인양되어 오갔고 문과 학박으로 조작된 조직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군내에 대한 수사라든가 관련자들의 사법처리도 뒤따라야 한다. 최근에 보도되는 군인사 비리와 관련해서 군 전체에 걸친 압록적인 모순을 없애야 한다. 다섯째, 구속된 양심선언 군인-전경을 전원 석방하고 10명의 수배자에 대한 수배해제와 명예회복이 보장돼야 한다. 이상 이러한 다섯가지 주 요구는 새정부의 개혁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되기도 해 국민들에게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이 시급하다. 지난 87년 7월8일 첫 군의 양심선언 이후 차츰 군인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토로해내는 행진 과정을 겪으며 87년 대선을 앞두고 행해진 양심선언



◇기독교회관에서 '한국군의 56공판정'을 내리고 농성투쟁을 하고 있는 군-전경들의 모습(사진 왼쪽으로부터 이동의·이중수)

에서는 비롯된 군대, '부당한 명령'에 거부하는 진정한 애국군이 드러난다. 이러한 민주군대를 위한 투쟁은 지난 88년 전경해제투쟁위원회가 구성되어 연방부터 군내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생적인 조직이 생기는 날부터이다.

89년에는 백골단 5명이 양심선언을 해 이같은 단군부대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91년에는 박석진·이동익군이 구속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지만 공개적으로 대항을 선포하는 양심선언과 군인들의 자기권의 되찾기위한 투쟁이 이어진다. 대학 이와같은 움직임은 7년의 역사를 가진 군운동은 올해를 맞

아 다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종로구에 자리잡고 있는 기독교회관 7층에서는 25일부터 '양심선언 군인-전경 수배자' 8명이 '한국군의 56공 판정과 군 민주개혁'을 내리고 농성투쟁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 여기 농성투쟁자 8명중엔 본교 출신인 군인과 전경으로 지난 91년 양심선언한 이동의·이중수군이 포함돼 있다.

이중수(사학88학번·2년휴학)군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경으로 차출당하면서부터 진정한 국방의 의무를 지며 버린 채 어제의 동료들을 전방에 그런 몰상식한 정부의 명령에 혐오감을 느꼈으며 양심선언을 하게 됐다.

또한 "전경으로 정권을 유지하는 기만적인 행위는 이제 문명사대에 맞지 않아야 한다"며 전경해제를 주장한다.

이미 9월제로 접어들고 있는 이번 농성은 단지 자신들의 수배해제만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김영삼정부가 부르는 정책과 맥락을 같이하면서 이 나라의 진정한 군의 개혁을 위해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농성중인 친구들이나 가족들은 매일 시내에 나가 서명운동 및 모금운동 벌이고 있으며 각 학교별로는 농성지원단이 꾸려지고 있다.

익리한 군개혁에 관한 문제는 단지 양심선언수배자 8명만이 생각하고 부딪쳐야 할 문제는 아니다.

군인 역사의 날인 5월과 애국을 자상하여 깨끗한 군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같이 투쟁해나가는 것이 현 시정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처사인 것이다.

대학 이와같은 움직임은 7년의 역사를 가진 군운동은 올해를 맞

◇신화부

◇ 제1기 한총련 출범식 취재특수

전대협 6년을 마감하고 한총련 시대를 선포하는 출범식이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전국 대학생 6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고려대학교에서 열렸다. 그동안 구국의 강철대오'의 모임을 지켜왔던 전대협은 이제 한총련이란 새이름과 함께 더욱 진보된 새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됐다. 27일은 출범식을 준비하는 전야제의 날이었다.

전대협 1기, 2기 의지의 총화들과 함께 여러 문화행사가 이어졌으며 곳곳에서 한총련 출범식을 사수하는 열의가 드높았다.

둘째날인 28일은 학자출범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출범식이 시작됐다. 다음에 이어진 조총련 출범식에서는 문익환 목사의 초청 연설이 진행됐다.

마지막날인 29일 대운동장에 집결해 결의를 다진 학생들은 광주학생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대회를 가지며 가두행진을 벌였으며 이 행진은 종로3가에 이르러 전경의 강경진압에 의해 충돌을 면치 못하고 결국 60여명의 부상자를 낸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했다.

3년 5개월의 징역을 마치고 전야제만 아침에 출소한 임군은 "김공에서, 강경대열사를 이어 열사들이 속출할때 마음이 아팠다. 그러나 오늘 한총련 출범식 소식은 정말 기쁜일이였다"라고 말했으며 무대로 나와 시 들어갈때까지 여학생들의 환호가 끊이지 않았다.

공부 열심히 해서 오는 8월20일 졸업하게 됐다고 자랑(?)하던 임군은 "우리 학생들이 부끄럽게 거역받아야 되는게 아니라, 세상을 만들자"며 굳은 의지를 보여준다.

출범식 전야제 도중인 28일 자정, 우리 농산물들이 한복판에서 깰릴사태가 벌어졌다.

장강은 우리 농산물을 팔던 전국 농민회 총연맹 회원들이 한총련 출범식에서 수인상품이 버젓이 팔리고 있는 사실에 분개한 나머지, 우리쌀

로 만든 떡과 김밥, 또 묵과 천연농믹수스를 김위에 넣고 볶았던 것. 그것도 그럴것이 수입마늘은 진작에 팔려 파장되고, 우리 농산물은 외면당하고 있었다.

쌀수입 반대, 반미를 외치면서도 농민들의 실정을 외면하는지도 모를 한총련백만학도에게 경총을 물린 사건이었는데.

한총련 출범식의 전야제가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달 27일밤, 우렁찬 남학생의 목소리와 생일축가가 음성다중으로 들려와 주위의 눈총을 받았었다.

한총련 출범식 전날인 26일,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달 27일밤, 우렁찬 남학생의 목소리와 생일축가가 음성다중으로 들려와 주위의 눈총을 받았었다.

한총련 출범식 전날인 26일,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달 27일밤, 우렁찬 남학생의 목소리와 생일축가가 음성다중으로 들려와 주위의 눈총을 받았었다.

한총련 출범식 전날인 26일,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달 27일밤, 우렁찬 남학생의 목소리와 생일축가가 음성다중으로 들려와 주위의 눈총을 받았었다.

한총련 출범식 전날인 26일,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달 27일밤, 우렁찬 남학생의 목소리와 생일축가가 음성다중으로 들려와 주위의 눈총을 받았었다.

한총련 출범식 전날인 26일,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달 27일밤, 우렁찬 남학생의 목소리와 생일축가가 음성다중으로 들려와 주위의 눈총을 받았었다.

한총련 출범식 전날인 26일,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달 27일밤, 우렁찬 남학생의 목소리와 생일축가가 음성다중으로 들려와 주위의 눈총을 받았었다.

한총련 출범식 전날인 26일,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달 27일밤, 우렁찬 남학생의 목소리와 생일축가가 음성다중으로 들려와 주위의 눈총을 받았었다.

한총련 출범식 전날인 26일,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달 27일밤, 우렁찬 남학생의 목소리와 생일축가가 음성다중으로 들려와 주위의 눈총을 받았었다.

한총련 출범식 전날인 26일,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달 27일밤, 우렁찬 남학생의 목소리와 생일축가가 음성다중으로 들려와 주위의 눈총을 받았었다.

한총련 출범식 전날인 26일,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달 27일밤, 우렁찬 남학생의 목소리와 생일축가가 음성다중으로 들려와 주위의 눈총을 받았었다.

한총련 출범식 전날인 26일,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달 27일밤, 우렁찬 남학생의 목소리와 생일축가가 음성다중으로 들려와 주위의 눈총을 받았었다.

한총련 출범식 전날인 26일,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달 27일밤, 우렁찬 남학생의 목소리와 생일축가가 음성다중으로 들려와 주위의 눈총을 받았었다.

한총련 출범식 전날인 26일,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달 27일밤, 우렁찬 남학생의 목소리와 생일축가가 음성다중으로 들려와 주위의 눈총을 받았었다.

한총련 출범식 전날인 26일,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달 27일밤, 우렁찬 남학생의 목소리와 생일축가가 음성다중으로 들려와 주위의 눈총을 받았었다.

한총련 출범식 전날인 26일,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달 27일밤, 우렁찬 남학생의 목소리와 생일축가가 음성다중으로 들려와 주위의 눈총을 받았었다.

한총련 출범식 전날인 26일,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달 27일밤, 우렁찬 남학생의 목소리와 생일축가가 음성다중으로 들려와 주위의 눈총을 받았었다.

한총련 출범식 전날인 26일,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달 27일밤, 우렁찬 남학생의 목소리와 생일축가가 음성다중으로 들려와 주위의 눈총을 받았었다.

한총련 출범식 전날인 26일,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달 27일밤, 우렁찬 남학생의 목소리와 생일축가가 음성다중으로 들려와 주위의 눈총을 받았었다.

한총련 출범식 전날인 26일,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달 27일밤, 우렁찬 남학생의 목소리와 생일축가가 음성다중으로 들려와 주위의 눈총을 받았었다.

한총련 출범식 전날인 26일,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달 27일밤, 우렁찬 남학생의 목소리와 생일축가가 음성다중으로 들려와 주위의 눈총을 받았었다.

한총련 출범식 전날인 26일,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달 27일밤, 우렁찬 남학생의 목소리와 생일축가가 음성다중으로 들려와 주위의 눈총을 받았었다.



◇지난28일 경찰은 연희동 교차로에서 평화시위를 벌이던 학생과 시민들을 다연발 최루탄·백골단 투입등으로 연행했다.

로 만든 떡과 김밥, 또 묵과 천연농믹수스를 김위에 넣고 볶았던 것.

그것도 그럴것이 수입마늘은 진작에 팔려 파장되고, 우리 농산물은 외면당하고 있었다.

쌀수입 반대, 반미를 외치면서도 농민들의 실정을 외면하는지도 모를 한총련백만학도에게 경총을 물린 사건이었는데.

한총련 출범식의 전야제가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달 27일밤, 우렁찬 남학생의 목소리와 생일축가가 음성다중으로 들려와 주위의 눈총을 받았었다.

한총련 출범식 전날인 26일,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달 27일밤, 우렁찬 남학생의 목소리와 생일축가가 음성다중으로 들려와 주위의 눈총을 받았었다.

한총련 출범식 전날인 26일,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달 27일밤, 우렁찬 남학생의 목소리와 생일축가가 음성다중으로 들려와 주위의 눈총을 받았었다.

한총련 출범식 전날인 26일,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달 27일밤, 우렁찬 남학생의 목소리와 생일축가가 음성다중으로 들려와 주위의 눈총을 받았었다.

한총련 출범식 전날인 26일,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달 27일밤, 우렁찬 남학생의 목소리와 생일축가가 음성다중으로 들려와 주위의 눈총을 받았었다.

한총련 출범식 전날인 26일,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달 27일밤, 우렁찬 남학생의 목소리와 생일축가가 음성다중으로 들려와 주위의 눈총을 받았었다.

한총련 출범식 전날인 26일,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달 27일밤, 우렁찬 남학생의 목소리와 생일축가가 음성다중으로 들려와 주위의 눈총을 받았었다.

한총련 출범식 전날인 26일,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달 27일밤, 우렁찬 남학생의 목소리와 생일축가가 음성다중으로 들려와 주위의 눈총을 받았었다.

한총련 출범식 전날인 26일,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달 27일밤, 우렁찬 남학생의 목소리와 생일축가가 음성다중으로 들려와 주위의 눈총을 받았었다.

한총련 출범식 전날인 26일,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달 27일밤, 우렁찬 남학생의 목소리와 생일축가가 음성다중으로 들려와 주위의 눈총을 받았었다.

한총련 출범식 전날인 26일,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달 27일밤, 우렁찬 남학생의 목소리와 생일축가가 음성다중으로 들려와 주위의 눈총을 받았었다.

한총련 출범식 전날인 26일,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달 27일밤, 우렁찬 남학생의 목소리와 생일축가가 음성다중으로 들려와 주위의 눈총을 받았었다.

한총련 출범식 전날인 26일,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달 27일밤, 우렁찬 남학생의 목소리와 생일축가가 음성다중으로 들려와 주위의 눈총을 받았었다.

한총련 출범식 전날인 26일,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달 27일밤, 우렁찬 남학생의 목소리와 생일축가가 음성다중으로 들려와 주위의 눈총을 받았었다.

한총련 출범식 전날인 26일,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달 27일밤, 우렁찬 남학생의 목소리와 생일축가가 음성다중으로 들려와 주위의 눈총을 받았었다.

한총련 출범식 전날인 26일,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달 27일밤, 우렁찬 남학생의 목소리와 생일축가가 음성다중으로 들려와 주위의 눈총을 받았었다.

한총련 출범식 전날인 26일,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달 27일밤, 우렁찬 남학생의 목소리와 생일축가가 음성다중으로 들려와 주위의 눈총을 받았었다.

한총련 출범식 전날인 26일,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달 27일밤, 우렁찬 남학생의 목소리와 생일축가가 음성다중으로 들려와 주위의 눈총을 받았었다.

한총련 출범식 전날인 26일,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달 27일밤, 우렁찬 남학생의 목소리와 생일축가가 음성다중으로 들려와 주위의 눈총을 받았었다.

한총련 출범식 전날인 26일,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달 27일밤, 우렁찬 남학생의 목소리와 생일축가가 음성다중으로 들려와 주위의 눈총을 받았었다.

한총련 출범식 전날인 26일,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달 27일밤, 우렁찬 남학생의 목소리와 생일축가가 음성다중으로 들려와 주위의 눈총을 받았었다.

한총련 출범식 전날인 26일,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달 27일밤, 우렁찬 남학생의 목소리와 생일축가가 음성다중으로 들려와 주위의 눈총을 받았었다.

한총련 출범식 전날인 26일,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달 27일밤, 우렁찬 남학생의 목소리와 생일축가가 음성다중으로 들려와 주위의 눈총을 받았었다.

한총련 출범식 전날인 26일,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달 27일밤, 우렁찬 남학생의 목소리와 생일축가가 음성다중으로 들려와 주위의 눈총을 받았었다.

한총련 출범식 전날인 26일,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달 27일밤, 우렁찬 남학생의 목소리와 생일축가가 음성다중으로 들려와 주위의 눈총을 받았었다.

한총련 출범식 전날인 26일,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달 27일밤, 우렁찬 남학생의 목소리와 생일축가가 음성다중으로 들려와 주위의 눈총을 받았었다.

인터뷰

◇ 아폴로산업 김도형 노조위원장을 만나

김영삼정부 출범이후 합법적인 노동쟁의 현장에 첫 공권력이 투입, 노조간부들이 구속되면서부터 논란의 대상이 됐던 아폴로산업(대표-김소유)사태가 지난 11일 노사합의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부분과협의 원인이었던 단체협약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채 구속자 석방에 머무른 임시적 해결이라는 점에서 향후 노사간의 대립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지난 18일 석방이후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단체협약과 '93임투에 대비해 바뀐 일과를 보고하고 있는 아폴로산업 김도형(28)노조위원장을 만나본다.

이번호사의 사법절차가 됐던 단체협약의 내용과 회사측이 교섭에 임한 태도는.



=총 1백11개 조항으로 이뤄진 단체협약중 핵심사항인 노조활동보장, 인사경영권, 수당인상 등 57개항이 미타결 됐으며 이는 회사측이 일방적인 교섭기피와 회사대표 불참등 성의없는 태도로 일관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이번호사의 사법절차가 됐던 단체협약의 내용과 회사측이 교섭에 임한 태도는.

이번호사의 사법절차가 됐던 단체협약의 내용과 회사측이 교섭에 임한 태도는.

이번호사의 사법절차가 됐던 단체협약의 내용과 회사측이 교섭에 임한 태도는.

이번호사의 사법절차가 됐던 단체협약의 내용과 회사측이 교섭에 임한 태도는.

이번호사의 사법절차가 됐던 단체협약의 내용과 회사측이 교섭에 임한 태도는.

이번호사의 사법절차가 됐던 단체협약의 내용과 회사측이 교섭에 임한 태도는.

이번호사의 사법절차가 됐던 단체협약의 내용과 회사측이 교섭에 임한 태도는.

이번호사의 사법절차가 됐던 단체협약의 내용과 회사측이 교섭에 임한 태도는.

이번호사의 사법절차가 됐던 단체협약의 내용과 회사측이 교섭에 임한 태도는.

이번호사의 사법절차가 됐던 단체협약의 내용과 회사측이 교섭에 임한 태도는.

이번호사의 사법절차가 됐던 단체협약의 내용과 회사측이 교섭에 임한 태도는.

이번호사의 사법절차가 됐던 단체협약의 내용과 회사측이 교섭에 임한 태도는.

이번호사의 사법절차가 됐던 단체협약의 내용과 회사측이 교섭에 임한 태도는.

이번호사의 사법절차가 됐던 단체협약의 내용과 회사측이 교섭에 임한 태도는.

이번호사의 사법절차가 됐던 단체협약의 내용과 회사측이 교섭에 임한 태도는.

이번호사의 사법절차가 됐던 단체협약의 내용과 회사측이 교섭에 임한 태도는.

"현 정부도 과거와 다를바 없어"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에대한 노조측의 대응은 -4년달 4월17일 정의발상시교를 내고 28일 조합원 91.2%의 찬성으로 주야간 2시간의 부분과업에 들어갔다. 우리들의 대응은 합법적이고 평화적 이었다.

공권력 투입과 구속된 과정은 -회사측은 지난 30일 노조간부 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상태에서 5일 박우교장이 결원됨에 따라 휴일을 이용해 사업장에 병력 3백50여명 투입, 나와 서경호(26)선전부장을 연행했다.

-11일 노사합의와 석방이 이뤄진 배경은 -6일 공권력 투입이후 전 조합원들의 단결된 전면과업, 인군 민주노조의 연대투쟁, 전국노조들의 격려와 지지등에 힘입은 노동자투쟁자들의 합법적 결과이며 이번 사태가 아폴로산업

의 본사인 현대자동차 '93임투에 과급되기를 꺼려하는 회사측의 조속한 사태수습에 기인했다는 견해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아폴로산업 공권력 투입의 본질을 규정짓는다면 -김영삼정부의 개혁이 본질적으로 한계점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시켜준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현 정부 출범을 노동자에게 전담시키려는 자본가들의 변하지 않는 속셈이 다시금 입증된 사건이었다.

-단체협상이 아직 남아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이번 사태로 걸핀 전 조합원들의 단결된 힘으로 이후 단체협상을 승리로 이끌 것이며 단결과 지지를 아끼지 않았던 여러 노동자단체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김태성 기자

동으로

수배중인 양심

91년 서울 제2기동대 63층대 소속 이중수일군은 휴가를 틈타 양심선언이라는 결단을 내린다.

"가해기간의 짧은 군대생활을 통해서 군대의 본 모습을 알게 됐다"고 그 당시 밝힌 이군이 지금은 기독교회관건물 7층에서 양심선언 수배자 7명과 함께 '군 민주화'를 위해 농성중이다.

2년이 지난 지금 더욱이 수배자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양심선언 군인-전경 수배자들의 '명예제대', '수배해제' 등 그동안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 몸을 사리지 않는다.

모든 수배자들이 겪게 되는 어려운 두말할 나위 없이 가족과 격리되고 단결과 지지를 아끼지 않았던 여러 노동자단체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무언가에 찡찡한 생활, 도청장치 때문에 일정한 곳에 머무를 수 없는 상황이 수배자들을 더욱 어렵게 만

든다. 전화상으로나마 어머니가 "몸 조심해라"는 말을 할 때면 당장이라도 고향인 부산에 달려가고 싶다고. "다른 동지들과는 달리 아직까지

수배중인 양심

상층이라는 말을 전하고 싶어도 "농성이라는 뜻조차 모르는 어머니를 교양이 흔자 있게해서 더욱 안타깝습니다"고 말한다.

군사운동 7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전개되는 이번 농성의 과정에서 그동안 이들이 자신을 버리고 군의 민주화를 위해 겪었던 생활을 생각하면 자살로 고개까지 숙혀진단다.

"지난 12.12주부터 주동인물을 법에 맞혀 처벌한다면 자회로도 단게 법에 따라 힘을 받을 각오가 돼 있다"고 농성중인 8명은 밝힌다.

또한 김영삼정부가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군민주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그러면서, 자신들이 한 행위를 단순의 탈명으로 보지 말라고 한다.

"군개혁문제는 비단 저회뿐 아니라 앞으로 군에 입대한 학생들에게도 인식돼야 한다"고 말하며 허허 웃고도 농성중인 8명은 밝힌다.

3남 1녀중 막내인 이군이 홀로 계신 어머니를 두고 타지 서울에서 농

김판서 기자

1993학년도 후기 동국대학교 각 대학원 학생모집

일반대학원

1. 모집과정 및 학과

가. 석사과정

인문계: 불교학과, 철학과, 인도철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사학과, 미술사학과, 철학과, 국문학과, 연극영화학과, 교육학과, 현문학과
사회계: 법학과, 정치학과, 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사회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회계학과, 농업경제학과, 지리학과
자연계: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통계학과, 농학과, 임학과, 응용생물학과, 조경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전기공학과,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화학공학과, 식품공학과, 산업공학과, 체육학과, 가정학과, 한의학과, 의학과

나. 박사과정

인문계: 불교학과, 철학과, 인도철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사학과, 미술사학과, 철학과, 국민윤리학과, 연극영화학과, 교육학과
사회계: 법학과, 정치학과, 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사회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회계학과, 농업경제학과, 지리학과
자연계: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통계학과, 농학과, 임학과, 응용생물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전기공학과,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화학공학과, 식품공학과, 산업공학과, 가정학과, 한의학과

2. 모집인원

석사과정 000명
박사과정 00명

3. 시험과목 및 내용

가. 석사과정

1) 시험과목: 가)영어 나)전공 다)수술교사
2) 시험내용: 영어시험은 4문항(독해력 측정)으로 출제되며, 전공시험은 각 학과 공통필수과목에서 출제하며, 수술교사는 각 학과별로 실시함.
나. 박사학위과정
1) 시험과목: 가)영어 나)전공(공통, 세부전공) 다)제2외국어(해당 학과에 한함) 라)수술교사
2) 시험내용
가)영어 시험은 4문항(독해력 측정)으로 출제되며, 전공시험은 학과 공통과목 및 세부전공과목에서 출제하며, 수술교사는 각 학과별로 실시함.
나)제2외국어: 불교학과·인도철학과, 국어국문학과, 철학과, 한의학과
다)제2외국어 시험과목 불어, 독일어, 일어, 일어, 한문, 중국어 중 택일(단, 법어는 인도철학과, 한문은 국어국문학과, 철학과(동양철학전공)에 한함)

4. 시험일정

가. 원서접수: 93년. 5. 26(수)~6. 1(화)
나. 원서접수기간: 93년. 5. 31(월)~6. 1(화)
다. 접수장소: 본 대학원 교학부
라. 시험일시 및

강의계획서 제역할 못해

“내용 부실-배포량 부족” 정정 불가 근거로는 부적합

지난31일 부터 시작된 93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에서 교무처는 이의 근거 마련과 수강신청서를 낮추기위해 강의계획서를 재제배포했다.

그러나 이의 배포량과 내용의 부실을 들어 총학생회 운영위원회는 수강신청기부결의등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

이에 강의계획서 발간에 근거한 수강신청정정기간 폐지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편집자)

우리가 그토록 바란던 ‘수강신청서 강의 계획서 배포’가 현실로 다가왔음에도 반감기는 커녕 착잡하기만 한 것은 어인 일인가.

학사행정 하나가 특이한 기준 없이 되는 대로 진행되어왔던 것인지, 강의 계획서를 받아보는 마음은 이렇 수도 있구나 하는 놀라움뿐이다.

우선 강의 계획서가 학년당 교양 2권, 전공 2권씩 배포되는 것이 황당할 뿐이다. 물론 그것마저 어려운 판에 없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던 강의 계획서 배포가 이런 식이 아님은 물론이다. 최소한 2명당 한 권 꼴로 배포되고 도서관, 교학과,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휴게실 등에 비치될 수 있었으면 했는데... 이것은 지나친 환상이었다.

우리 손에 쥐어진 강의계획서는 수강신청시 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방학동안 전공 강이나 교양 강의를 준비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훌륭한 지침서가 될 수 있다는 데 그것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강의계획서는 이렇게 쓰일 때만이 제 역할을 다 할 것이고, 강의 계획서는 이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내용과 형식을 담고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수강신청서 강의계획서 배포는 처음 시도되는 일에서 미미한 면이 남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기도 하다.

하지만 학년당 2권씩 배포하고는 할일을 다 했으니, 이제 수강신청 정정기간을 폐지하겠다는 교무처의 처사는 좀 심하지 않나 한다.

교무처의 주장에 불만을 토로하는 학생들의 수가 수강신청기간 내내 늘

어가고 있다. 하루이틀 파행적인 학사행정을 겪어왔던 것이 아니라, 지금쯤 파악이 될 법도 하다. 현대 이번 일 만큼은 꼭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의계획서를 받아보는 순간 강렬해진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강의계획서가 학년당 2권씩 배포되었는데, 이것은 수강신청의 자료로도, 방학동안 강의준비 자료로도 활용될 수 없다. 제역할을 못하는 강의계획서는 옳나 마나 할 뿐이다.

그리고 이것을 참고로 수강신청을 한 학생들은 다음 학기초에 수강신청 정정기간을 요구하여 교무처와 힘겨루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수강신청기간이 너무 짧다는 점을 지적해야겠다. 말랑 2권을 내놓고 3일간의 수강신청기간을 제시하며, 다음 학기 수강신청 정정기간을 폐지한다는 것은, 명분을 앞세운 학사행정 권위주의적 발상에 다를 아니다. 강의 계획서와 수강신청서가 각 학년의 배포되는 것만 해도 하루는 죽어 걸린다. 더군다나 두 권씩 배포되는 강의 계획서를 참고로 이를 안을 수강신청을 해야만 하니, 어찌 제대로 강의

◇교무처가 지난27일 배포한 강의계획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수강신청을 제대로 할 수 있었는가. 수강신청기간은 지금의 3일에서 일주일 이상으로 연장되어야 할 것이다.

교무처는 명분만인 강의계획서를 핑계로 다음 학기 수강신청 정정기간을 폐지하겠다고 고집한다. 수강신청시 강의계획서 배포는 수강신청 정정기간을 폐지할 수 있는 요건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지금처럼 강의계획서가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수강신청 정정기간의 폐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수강신청기간 동안 학생들은 강의시간표만으로, 강의시간이 겹치지 않는 강의를 찾아 수강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 이는 학생들의 잘못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교무처의 잘못된 관행에서 생긴 결과이다.

지금 수강신청의 문제는 첫째, 강의계획서 부수가 너무 적다는 것 둘째, 이것을 참고로 수강신청하기에는

3일이 너무 짧다는 것 셋째, 마음에 드는 강의를 찾기보다는 시간이 겹치지 않고 학점이 후한 강의를 찾아 수강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 넷째, 수강신청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수강신청 정정기간을 폐지하려한다는 네 가지이다.

이렇게되면 학생들은 수강신청 연기가 거부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이를 통해 다음 학기 수강신청 정정기간을 보장 받으려 할 것이다. 학사행정이 학생들의 의견을 도외시한 채, 형식이 치우치고 권위주의적이라는 인편이다. 지금까지 그것이 관행이었다면 고쳐야 한다.

학사행정은 학생들의 학습여건을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어서, 업무의 편의에 의해 집행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남철우

<중앙교육과정평가위원회 위원장>

◇구내서점 확장 이점을 앞두고

확장과 함께 질적개선 필요

학교·학생 공동직영통한 정상화 시급 교재·교양서적 고루 갖춘 명실상부한 서점 돼야

구내서점에 대해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재판매점’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변별한 참고서적이나 교양서적은 진열대에서 찾아보기조차 힘들기 때문이다.

적어도 대학의 구내서점이라면 학생들 최소한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점은 일반 학생들을 통해 수차례 거론돼 왔으나 별반 달라진 것은 없었다. 그러나 오는 7월 방학 구내서점 확장 이전 공사가 추진될 계획에 때맞춰 학생복지위원회(위원장=김은현·최계 4)는 학교측에 서점의 정상화를 촉구 하고 나섰다. 현재 학교당국이 추진 중인 서점확장 공사는 기존 25명 규모의 현 구내서점을 다량한 지하 본식코너 공간인 40명에 확장 이전하고 7월초 내부수리공사에 들어갈 계

획이다.

학복위는 이에 확장과 더불어 구내서점의 체질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구체적인 타대 조사작업과 학교실무자들과의 협의를 진행했다.

학복위가 서점의 정상화를 위해 제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일반인에게 임대되어 운영되어온 운영형태를 학교 학생 공동운영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학복위 주장에 의하면 지역성 서점에 교양도서를 교재와 거의 동등한 비율로 배치가 가능해지고 더불어 임대보다 수익이 높아진다는 생각이다. 이와 반대로 학교당국 실무자들은 지역형 경우 서점운영의 전문성 담보나 서점 카탈로그 형성된 잘못된 유통구조가 지리한 출판계로부터 직거래가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영입이나 수익면에서 열악한 조건이 될 것이라고 전방한다.

또한 현재 학교·학생 공동직영체로 구내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외국어대나 원광대의 경우 직영이후 5년, 13년이 지난음에도 학복위에서 직영에 효과적이라고 하는 등 학생이 이 루어지지 않았고 운영도 안정되지 못하고 사세를 들어 직영형태는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이에 학복위는 학교당국이 직영에 실패한 예로 태화고나 한양대, 홍익대들은 학교 주위에 대규모 서점이 자리한 특수여건과 서점상들의 카탈로그, 출판계의 구내서점에 대한 유통 압력을 막을만한 전문경영인 고용, 서점현상유지외에 학교당국의 적극 성부중심의 실패원인을 밝힌 조사 자료를 근거로 이러한 점들에 대해 공동노력에 보편한 되도록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학교·학생 직영으로 교재와 교양도서를 50 : 50의 비율로 배치하

는 서점의 정상화와 함께 매출액의 성장을 나타낸 연세대의 성공사례를 강조했다.

이같이 학복위와 학교당국간의 직영에 관한 논의가 진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학복위는 독자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학복위는 확장에 이전되는 현 구내서점 임대업자와의 논의 등을 통해 출판사들과의 직속거래를 보장받으려 하고 있으며 열람실 확보, 교양도서 비치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같은 학복위의 움직임에 학교당국은 큰 우려를 표시하며 임대에 비해 현상유지도 되지않을 것이라는 비판적 견해를 나타냈다.

또한 학교당국은 현상에서 서점이 학생들을 위한 교양도서 비치나 열람실 확보등의 사항을 현 임대업자와 상의하는 것을 통해 개선하는 것

<p>경영대학원</p> <p>1. 모집과정 및 전공 석사과정, 연구과정 ①경제학과·산업경제전공, 금융 및 재정전공 ②무역학과·무역이론전공, 무역실무전공, 무역보통 및 해운전공, 무역경영전공 ③경영학과 조직 및 인사관리전공, 생산관리 및 계량경영전공, 마케터링전공, 재무관리전공, 국제경영전공 ④회계학과·관리회계전공, 재무회계전공, 세무회계전공 ⑤경영정보학과·정보시스템전공, 경영정보시스템전공 ⑥노사관리학과 노사관리전공 ⑦부동산학과 부동산전공</p> <p>2. 원서 교부 및 접수 93년 5.24(월)-6.4(금) 11:00~17:00 (단, 토·일요일은 교부만 함)</p> <p>3. 전형일시 및 장소 93년 6.12(토) 14:00 본 대학원</p> <p>4. 전형방법 1) 석사과정: 논술형(경영학전문) 및 면접 2) 연구과정: 논술형 및 면접</p> <p>5. 특전 ① 해외 자매대학 등의 연수에 참가할 기회 있음. ② 경영정보학과 및 생산관리전공은 본국의 컴퓨터센터를 이용 할 수 있음 ③ 조계중 재직승리, 공무원, 교직원, 군인, 공인회계사 등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함.</p> <p>□ 경영관리자과정 □ 1. 지원자격: 가. 회사, 사회단체의대표 및 간부 나. 노조간부 공군공정도 및 정부 각기관의 5급이상 공무원. 기타 이에준하는 자격을 갖춘자</p> <p>2. 원서교부 및 접수 1993년 5월24일(월)~6월4일(금) 11:00~17:00</p> <p>3. 전형일시 및 방법 1993년 6월12일(토) 14:00서류전형 및 면접</p> <p>전화:260-3105. 3106</p>	<p>교육대학원</p> <p>1. 모집과정 및 전공 석사학위과정 ①교육학과: 교육행정, 교육경영, 상담교육, 유아교육 ②교과교육학과: 국어교육, 지리교육, 역사교육, 수학교육, 음악교육, 철학교육, 미술교육, 한문교육, 체육교육, 영어교육, 물리교육, 화학교육, 생물교육, 가정교육, 전산교육, 종교교육</p> <p>2. 원서 교부 및 접수 93년 5.24(월)-6.4(금), 10:00~17:00 (단, 토·일요일은 교부만 함)</p> <p>3. 전형일시 및 장소 93년 6.12(토) 14:00 본 대학원</p> <p>4.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p> <p>5. 특전 ① 무대전형: 공·사립 중등학교 현직교사 및 교감, 교장, 교육행정기관의 연구사, 장학사 등 ② 정학: 공무원, 교직원, 조계중 재직승리에게는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함 ③ 교원자격증: 교원자격 검정기준 해당하는 졸업후 중등2급 교사 자격증 발급</p> <p>전화:260-3109. 3110</p>	<p>정보산업대학원</p> <p>1. 모집과정 및 전공 석사학위과정, 연구과정 ①정보전산학과: 정보관리전공, 전자계산전공 ②신문방송학과: 신문방송전공, 출판편집전공 ③정보통신학과: 정보통신전공</p> <p>2. 원서 교부 및 접수 93년 5.27(목)-6.9(수), 10:00~17:00 (단, 토, 공휴일, 일요일은 교부만 함)</p> <p>3. 전형일시 및 장소 93년 6.19(토) 14:00 본 대학원</p> <p>4. 전형방법 ① 석사과정: 필기시험(전공 및 영어) 및 면접 ② 연구과정: 서류전형 및 면접</p> <p>5. 특전 ① 현직 인원으로 대하여 특별우대장학금을 지급함 ② 출판전직 전공자에게는 범우출판 장학금 특전이 있음 ③ 공무원, 교직원, 군인, 국가산업체 종근간부원에 대하여 각종 장학금지급</p> <p>□ 정보산업관리자과정 □ 1. 지원자격: 언론계, 기업체, 국가기관, 군인, 사회단체의 중견관리자 2. 원서교부 및 접수, 전형일시 및 방법 연구과정과 동일</p> <p>전화:260-3113. 3115</p>	<p>산업기술대학원</p> <p>1. 모집과정 및 전공 석사학위과정, 연구과정 산업학과, 전자-전기공학, 컴퓨터공학, 기계공학, 건설공학, 화학공학, 식품공학, 산업공학, 농업자원</p> <p>2. 원서 교부 및 접수 93년 6.3(목)-6. 16(수)(10일간)</p> <p>3. 전형일시 및 장소 93년 6.19(토) 14:00 본 대학원</p> <p>4.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p> <p>5. 특전 ① 국가기관 및 기업체의 종근간부와 장기 실무 경험자는 전형시 우대함 ② 공무원, 군인, 교직원, 국가산업체 및 우수한 기업체 종근간부에게는 각종 장학금을 지급함. ③ 재직시 출장장학, 우등장학, 외국인장학 등 각종 장학 특전 부여. ④ 해외 자매결연 대학 등에 연수 기회 제공.</p> <p>□ 산업관리자과정 □ 1. 지원자격: 공·사기업체 임원 및 중견간부, 고급공무원 및 군인 기타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서교부 및 접수, 전형일시 및 방법 연구과정과 동일</p> <p>전화:260-3602. 3603</p>	<p>지역개발대학원</p> <p>1. 모집과정 및 전공 석사학위과정, 연구과정 개발행정학과: 개발행정, 지방자치, 지역경제개발</p> <p>2. 원서 교부 및 접수 93년 6.8(화)-6. 17(목) 10:00~17:00</p> <p>3. 전형일시 및 장소 93년 6.19(토) 14:00 경주캠퍼스 전용관</p> <p>4. 전형방법 가. 석사과정-논문, 서류전형, 면접 나. 연구과정-서류전형, 면접</p> <p>5. 특전 기업체 및 국가기관 실무경험자는 우대전형하며 공무원등에게 장학금지급</p> <p>□ 관리자과정 □ 1. 지원자격: 정부 각기관의 관리자급공무원 및 정부투자기관 또는 사기업체의간부, 공공 및 사회단체의 간부 2. 원서교부 및 접수, 전형일시 및 방법 연구과정과 동일</p> <p>전화: (0561)770-2091</p>
--	--	---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대학원 교학부로 문의바랍니다.

단과대 학장에게 듣는다

⑦농과대 김홍철 학장

실험 실습 기자재 낙후 문제 시대적 요구 따라 점진적 개편 필요



현대과학의 농업시설을 갖춘 단과대학으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시대에 맞는 과목과 학과의 증설 방침은
-전국교과과정들을 모아서 비교 검토하고 있으며 시대적 요구에 맞춰서 점진적 개편을 할 것이다.
-시대에 적합한 산업자원공학 과, 도시환경연애과, 유전공학과의 신설을 요구하는 것을 고려중이다.
-우리농업의 진로 모색은
-농업의 규모화·기계화, 토지이용의 확대, 시설의 첨단화·과학화 등의 농업구조개편으로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자연기후조건이 유리한 원예, 과수등의 경쟁력있는 작목을 선택해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일본에서 벌이는 1촌1품운동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에 맞는 특산물 생산으로 과잉공급으로 인한 가격폭락을 막아 농가경제 안정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이 수업에 반영되기를 원하는 봉사활동에 대한 생각은
-진건한 봉사활동이라면 학생 자치활동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근로봉사, 아이들 교육, 농업기술보급으로 영역이 넓었고 지금도 생산기술이 높아지고 팜종화되어 근로봉사에만 머물렀던 학생들을 기하는 농과대학의 김홍철(농업경제학)학장을 만나서 현재 농과대학에 안고있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들어본다.

농과대의 설립취지와 교육목표는
-농과대 설립당시만해도 농민이 전체 국민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농업은 산업적, 안보적인 면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국민경제 산업의 일환으로 식량생산에 주안점을 둔 농업분야의 기여를 위해 설립했으며 농업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현재 농과대가 안고있는 문제점은
-교수의 연구활동환경과 학생들의 학습활동이 열악한 상태이다. 40여년의 역사를 가지면서 실험실습기자재가 노후화되고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예를들면 철단과학분야 농장실습실습사실, 연습실의 입산기공실습실습사실, 현미경, 컴퓨터등의 실습기자재의 확충이 필요하다.
-농과대의 단기자, 장기적 발전 전망은 어떻게 보는지.
-도서관에 전공관련 신간 확보, 실습기자재확충으로 내실을 기하며 장기적으로는 학과중심도 단과대학의 세를 신장해야한다. 또한 실험농장이 있는 곳으로 농과대학을 이전, 보다 더 현실의 장에서

(사회부)

◇경기일대 문학기행을 다녀와서

땅에서 느낀 삶, 그리고 문학

한국문학예술연구회(학장-임현영·문학평론가) 주최 제 11회 문학기행이 지난 5월 22·23일 양일간 경기도 일원에서 있었다.

문학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문학기행. 정지적으로 개최되는 이 기행은 문학에 관심 있는 독자들에 소개하면서 적극적인 문학활동을 기대해본다.

<편집자>



◇윤정모씨가 제비마을에 자리잡은 지리잡은 지역 앞 잔디밭에서 작품 '들'의 배경에 대한 설명을 끝내고 질문을 받고 있다.

경기일대 문학기행은 땅속에서 버려진 땅의 부끄러움을 상기시켜 준 여행이었다.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팽개쳐진 메마른 대지와 황폐한 농촌 현실이 전부였다.

그러한 조짐이 맨처음 안내한 곳은 양주리 부근 채광석 시인이 잠든 곳이었다. 민족문학의 열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80년대 시인이자 평론가였던 채광석의 묘는 산꼭대기에 자리잡고 있었다. 재야단체에서 민주화를 부르짖었던 파란만장한 그의 삶을 산꼭대기에 올려 놓은 뜻은 산을 오르면서 절로 느낄 수 있었다. 가파른 산을 통해 시인의 삶을 말하고자 한 것이리라.

땀으로 젖은 몸을 이끌고 일행은 곧바로 다산 정약응의 생가로 향했다.

조선 후기 역사의 서평인인 실학을 집대성한 다산이 태어나 자라고 연구하고 사색하며 수많은 저서를 저작하고 정리하여 보관하고 죽어갔던 이곳 양주군 와부면 능내리. 그러나 가슴 아프게도 이 나라 민족사의 한맥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었을 마재(능내리의 당시 지명)는 사라지고 유흥객들의 삼삼오오 한가롭

게 경치를 구경하고 있었다. 다산의 묘소에 참배하고 나니 73세의 고령에 저서를 마무리하던 모습이 떠오르는 것 같아 그 뜻조차 잊지 못하는 죄스러운 마음에 발걸음이 때리지 않았다. 후손의 부끄러움을 벗고 다시 눈을 다짐해 본다.

오후의 햇살이 환풍 쪼여 선 선해질쯤 백정문제를 소재로 한 황순원의 '일월'의 배경지인 신장에 들렀다. 그러나 소설속의 분디나무꽃은 찾아 볼 수 없고 땅에서 대전을 이을 중부고속도로 공사장의 모습만 뒤로한 채 돌아야 했다. 아쉬운 마음을 안고 허탈한 시비가 모셔진 곳으로 향했다.

버스 안에서 임현영학장은 허난설헌의 섬세한 필치와 애상적 시풍을 설명하고 "특별한 시세계를 이룩한 이분의 뒤를 이을

현대판 난설헌이 없어 아쉽다"며 말을 맺었다.

어둠이 어지러져 절어지자 버스는 여주 속으로 향하고 있었다. 피곤하긴 했지만 한사람의 상상을 시작으로 여기저기 신선한 노래소리로 봄기운의 나뭇잎을 떨칠 수 있었다.

9시가 넘어야 식사와 세면을 마치고 둘러 앉았다. 하루일과를 정리하고 내일 있을 기행들을 점검했다. 서로의 소개를 끝내고 문학기행에 따르는 간단한 설명을 듣는 분위기는 출발할 때와 달리 다소 가리연이 있었다.

한나절이지만 둘러본 대부분이 농촌이었고 그 모습 또한 정지에 가까운 침묵이었기 때문이리라.

그 이유가 인간의 가슴에 의한 것이기에 더욱 가슴이 아팠

다.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한 대하소설을 집필중인 김남일씨는 그가 소설을 쓰게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하며 "살이 낫은 문학일지라도 이런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 댕지 비집해지는 것 같아요"라며 고개를 숙인다.

막걸리가 들어왔다. 그러나 예전처럼 쉽게 마시진 못했다.

술이 들고 노래가 들었다. 그날 어주의 밤은 오랫동안 휘청거렸다.

다음날 일찍부터 신문사를 관망하고 민비의 생각에 들른 후 영조에 의해 죽음을 당한 사도 세자의 능을 찾았다.

봄소풍은 유치원생들의 재갈 거머에 그 참살사건도 역사적 사실로만 느껴졌다.

백암의 어느 순채집에서 순채

한 점과 도시락을 먹은 후 찾은 곳은 바로 윤정모의 대표작 '들'의 배경지인 제비마을이었다. 논 사이로 난 하얀길을 작가의 설명을 들으며 걸었다. 그야말로 산과 들이 전부였다. 좋게 말하면 아름다운 풍경이지만 실제로 그곳이 우리나라 농촌의 현실이라면 심각했다. 키만들이나 자란 잡초며 인적없는 들.

윤정모씨가 본격적으로 농촌 문제를 소설로 쓰고자 한 건 영성 문학이 가져다 준 낭만주의에서 독자들을 구출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이곳 백암으로 들어와 농민들과 같이 생활하고 체험하고자 했지만 실제 농민들은 도시로의 진출만을 꿈꾸고 있었습니니다. 2년간 소설을 쓰면서 좌절도 많았지만 이렇게 만든 사회를 폭로하고 싶어요"라며 그간의 사연들을 들려주었다.

우리 사회의 문제가 비단 농촌뿐이겠는가. 잊어진 언젠 중요한 것을 잊고자내지 않았나 물어보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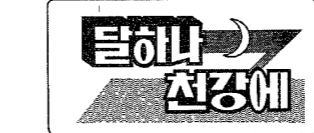
이제 단지 그들의 땅이라고 말하지 마라. 우리들의 땅 우리들의 어머니인 것이다. 잠시 후 윤정모씨가 안내한 곳은 허름한 고를상같은 곳이었다. 그곳에는 '들'에 나오는 우리 농토에 가장 적절한 농기계가 '기어차기'가 있었다. 직접 땅갈이를 하면서 20년 넘게 한국식 농기계를 만들어낸 문명현씨가 실제의 인본임을 확인하고 사람들은 감탄했다. 직접 농기계를 움직이고 설명하는데 신명난 문명현씨를 보며 아직 남아있는 불세를 본듯 기뻐했다.

윤정모씨는 마지막으로 "농촌 운동을 하던 형제와 완준이 같이 힘있는 젊은 이들을 사랑합니다"라고 덧붙이며 환하게 웃었다.

이제 모내기에 한창인 들과 아슬아슬 눈인사를 하고 서둘러 들어가는 일행의 표정은 가깝지 않지만 결코 어둠이 사라지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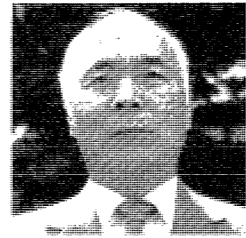
망각했던 땅에 대한 기억들이 살포시 살아나는가 보다.

<백천주 기자>



화이트칼라 범죄의 불법의식

孫海睦 <법과대학법과 교수>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범하는 범죄를 가리킨다. 지능범죄의 일종이다.

범죄라고 하면 대개 생활이 궁핍하거나 사회 하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부도덕한 비인격적인 생활태도에서 범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생활이 궁핍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생활의 안정이 되어 있거나 여유 있는 사람들이다. 또한 그들은 두둑히 부러 인격적인 대접을 받는다. 가장 도덕적인 인격자인 양 한다.

불법외의식이란 법률이론상으로는 범죄성립의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다. 따라서 확으로 불법외의식을 하지 못한 경우는 설명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를 전제로 하여 범법은 처벌하지 아니한다. 즉 어떠한 이유에서건 이런 불법외의식이 없으면 범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불법외의식에 대해서 법률이론상의 문제보다는 그 이전에 도덕적으로 어느 정도의 불법외의식을 가지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 어떤 범죄인이 유전적·무전유죄라고 한 것 그들 자신이 듣기 싫은 것이 죄이지 죄외의식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상류층은 죄를 범하여도 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범법을 요하는 것이나 실제로 화이트칼라 계층에서 범하는 범죄행위는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법률상으로는 범죄이지만 부도덕하다거나 불법외의식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공직자가 뇌물을 받는 것은 상식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을 가지고 부도덕하다거나, 불법외의식이라는 것을 평가하게 되면 오히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본다.

망각했던 땅에 대한 기억들이 살포시 살아나는가 보다.



쉽게 읽는 '화엄사상' 역사와 문학의 접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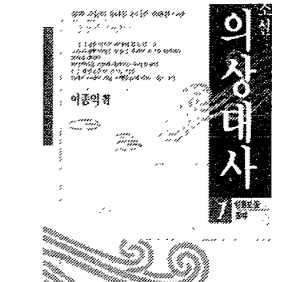
'우리 겨레의 역사. 풍토에서 이룩된 불교정신의 열과 문 화의 열을 분명히 드러내요.' 작가는 소설의 상상대사를 내놓으면서 글을 쓰게된 동기를 이렇게 설명한다.

저자인 고 이중익교수는 본교 불교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소설 사명대사, 무학대사 등 다수를 집필했다. 이 책은 1967년 1월 마무리 되었으나 지난달에 비로소 발간되었다.

천삼백년을 면면이 이어져 내려와 실로 우리나라 불교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화엄사상. 그 화엄종의 개조인 신라의 고승 의상대사가 속에서 겪어와 했던 운명과 수도, 행도라는 과정을 통해 동양 정신문화에 걸려 있는 자비를 이야기하고 역사의 터전속에 묻혀진 우리 겨레의 빛과 열을 더듬는다. 지금까지 불국사라는 문화재

속에 깃들여 있는 우리 민족 '문화의 열'을 분명히 드러낸 책이 드물었으나 이 책에서는 그 열을 꿰뚫어 소개한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불교사상을 토대로 한 소설은 쉽게 읽히기 어렵게 사실이 다. 그점을 이 책은 화엄경이 지니고 있는 교리와 철학의 즐거움을 쉽게 풀어내 화엄사상을 통해 역사의 발자취를 엿본다.

서라벌 제일의 미장부라 일컬어지던 일지공자가 큰 스님이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서술하면서 교설이나 철학자의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나 불교의 진수 화엄종을 연 의상대사의 깊이 있는 사상을 엿보기에 충분하다. 그 무쇠와 치돌이로 녹여버릴 구도의 정신, 장엄한 수도의 체험, 우주와 인생의 비밀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



의상대사 <민중사·5천원>

다. 역사를 소설화한 책이 많이 나오고 있으나 불교를 문학과 접목시켜 대중들이 널리 읽고 그 근본에 자리잡고 있는 불교의 정신을 확인하는 것은 사회 정화의 문제에 있어서도 큰 의의가 있으리라 본다.

<문화부>

투고시

기억의 집 —그리운 분지

윤 희 순 <시인·경주컬퍼스 국문89졸>

오랫동안 무심히 지나쳐왔구나 후두둑, 비바람에 멀어지지 않으려 안간힘 쓰던 청춘의 푸른 잎들아 정적 불러 일으킨 바람아 부디 안녕한지 깨진 항아리로 들뜬 물린 채 오래도록 가슴 속 묻고 살아갈 그리움도 더러 기진한 발걸음에 띠려 채이고 우리는 곁 속에서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기억을 만나 친목 벌떡벌떡 돌이킨다 폭풍우같은 나날, 말의 새를 날기 위하여 반월성 등대는 너목들 속내 울크리고 애타 기쁘진 세상을 위하여 삼천살을 굶고 만 소수명에 나를 불렀다 문지 속에 묻힌 천년의 바람 일어나 돌지 몇 조각으로 갈라 오래 쓸쓸로 담겨 된 청춘에 불 붙일 때 몇명은 죽을 파부춘으로 또 몇명은 요석굴 굴라라 넘다 세월해져 노를 띄워 미션지 경고하게 뿌리 내리지 못한 말들이어

몸뚱이처럼 람 배내 길 떠나던 영혼이여 산 것 같지 않은 벼기 살만한 세상 이루겠다고 숨잡이란 슬픈 애매한 암모니아 냄새

숨을 탁막 막는 화장실에서 울분을 쏟으며 얼어지고 넘어지며 뒷대 세우고 열변 토하던 뜨거운 밤들이 그림자 같느냐 이제는 그 밤들도 고요하구나 기억의 장해를 추스리며 나는 이곳에서 너는 그곳에서 살아간다 불타는 그리움도 없이 이방인으로 살아간다! 진득진득한 그리움으로 세월로도 물러보낼 수 없는 끈끈한 추억을 끼고 햇볕 평평한 날, 제대로 일 리우지 못한 불명의 말 췌안고 우리는 언젠가 만나리라 피 리지게 써운 다음날 마른 가슴 속 열갈 물고 비비다 눈 뜰 아침처럼

20살 여성을 위한 에피앙 광고페이지

자기주장이 강한 신세대 Inner Wear, 비너스 에피앙

형· 22세 응음미술원 3년

Simple & Soft 감각의 고품격 언더웨어, 비너스 에피앙

감각세대 20살, 바로 이 감각 신세대인 18세~23세 여성에 잘 맞도록 색다른 감각과 Simple함, 그리고 편안함을 그대로 입을 수 있는 비너스 에피앙. 그래서 에피앙은 20살 여성을 위해 만든 화용테이션 관계리입니다.

감각, 디자인, 소재에서 개성이 더욱 돋보이는 20살 여성의 관계리, 비너스 에피앙

아웃웨어의 다양화와 함께 개성화 및 감성화에 발맞추어 20살 여성의 욕구(need)를 충족한 비너스 에피앙은 「감각과 디자인」 그리고 「소재」에 이르기까지 한층 다양해진 패션경향에 우안을 둔 패션리더 관계리 입니다.

자기만의 멋을 추구할 줄 아는 탐구하는 아름다움, 비너스 에피앙

아름다운은 추구할수록 더욱 돋보이듯이, 탐구하는 아름다움은 그 깊이가 더해 보이기 마련입니다. 20살 여성의 아름다움은 더욱 아름답게 표현하는 비너스 에피앙, 에피앙은 Inner wear를 통해 내면의 아름다움을 스스로 표현할 줄 아는 신세대를 위한 화용테이션. 관계리 입니다.

비너스 에피앙

기념사업기금 2억여원 모금

대부분 교내 인사 기부... 교외확대 추진 시급

개교 90주년 사업본부 홍보작업 전담

개교 90주년을 맞는 본교 발전사업으로 준비되고 있는 동국학술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모금사업의 일환으로 개교 90주년 기념사업본부(본부장 박동기)에 따르면 교내 차·과장급 이상 교직원들이 50만원 이상씩 기탁했으며 여타 교직원, 대학원생, 학부모 등의 기부액과 합쳐 총 2억1천5백83만원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하고 있는 개교90주년 기념사업부(본부장 박동기)에 따르면 교내 차·과장급 이상 교직원들이 50만원 이상씩 기탁했으며 여타 교직원, 대학원생, 학부모 등의 기부액과 합쳐 총 2억1천5백83만원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 금액은 분할납부등의 약속 금액이 아닌 현재까지 현금 기탁액만을 집계한 것으로서 기념사업회가 정식 발족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괄목할 만한 액수이나 학내 구성원들만의 참여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해 개교 90주년기념사업본부 산하에 사무국장은 "모금운동을 불교계, 동문, 중안동 학회로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홍보작업을 펼치는 것이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학의 홍보를 위해 재원확보를 위한 전담기구인 기념사업본부는 올 상반기에 홍보주력기간으로 설정하고 지난달 4일 밝힌 기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총동창회 동문에게 4페이지 분량의 기부금기탁안내 팸플릿을 6월 총회이전에 우편배부

자연과학관 공사중 유물 출토

경주 유적지 연구 도움 줄듯

경주캠퍼스 박물관(관장=황상우·미술학)은 지난 5월10일 자연과학관 공사중 발견된 선사시대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효동 석실분과 효성여대 발굴이 근후하고 부지에서 발굴된 석실분과 연관성이 있어, 경주 지역 석실분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박물관 측은 이번 발굴의 의의로 지금까지 경주지방 선사유적의 지표조사를 제외하고는 어느곳에 어떤유적이 분포하는지 학술적인 자료가 없었으나 이번 발굴조사로 석강, 금강 일대지역에 형성된 유적지 연구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물관 측은 31일 마감하기로 한 발굴조사를 유구성적 규명을 위해 10일정도 더 진행 조사 할 예정이다.

한의대 학생 수업이수 시한 경과

"유급감수 파업투쟁 벌일터"

경주캠퍼스 한의대 학생회(회장 박호진·한의2)는 보사부가 입학예고한 약사법 개정안 시행에 반대해 지난 3월18일부터 수업거부에 들어가는 8일 법정 수업이수한 한 학기당 16주의 수업시한을 넘기게 돼 유급이 우려된다.

한편 박물관 측은 31일 마감하기로 한 발굴조사를 유구성적 규명을 위해 10일정도 더 진행 조사 할 예정이다.

이해 개교 90주년기념사업본부 산하에 사무국장은 "모금운동을 불교계, 동문, 중안동 학회로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홍보작업을 펼치는 것이 과제"라고 강조했다.

행정학과 고시대책 마련 요구 농성

행정학과 고시대반 '행정제(대표=임수영)' 학생들은 행정고시 준비를 위한 공부방 확보를 요구하며 지난 5월25일부터 동국관(L404)에서 농성중이다.

그동안 고시를 준비하던 행정학과 학생들은 학실실이 사라지고 있는 동국관 1층(M130)에 공부방을 마련해 놓고 공부해 왔다.

고 안집섭군 장례식 치위

유해 북한산에 안치

에베레스트산(8천8백48m) 등정에 성공한 후 하산도중 추락사한 안집섭(체교4)군과 남원우(경영88중)동문의 장례식이 지난 1일 오전10시에 정각원에서 치뤄졌다.

이 장례식에는 안군과 남동문의 유족, 산악부 대원등 3백여 명이 참석해 가운뎃 치뤄졌다.

지역개발대학원 등산대회 개최

경주캠퍼스 지역개발대학원(원장=김시배·경제학)은 오는 6일 오전10시 본교 대운동장을 출발하여 오봉산, 주사암, 부산성까지 등반하는 등산대회를 실시한다.

이같은 학의 홍보를 위해 재원확보를 위한 전담기구인 기념사업본부는 올 상반기에 홍보주력기간으로 설정하고 지난달 4일 밝힌 기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총동창회 동문에게 4페이지 분량의 기부금기탁안내 팸플릿을 6월 총회이전에 우편배부

지역개발대학원 등산대회 개최

경주캠퍼스 지역개발대학원(원장=김시배·경제학)은 오는 6일 오전10시 본교 대운동장을 출발하여 오봉산, 주사암, 부산성까지 등반하는 등산대회를 실시한다.

지역개발대학원 등산대회 개최

경주캠퍼스 지역개발대학원(원장=김시배·경제학)은 오는 6일 오전10시 본교 대운동장을 출발하여 오봉산, 주사암, 부산성까지 등반하는 등산대회를 실시한다.

이같은 학의 홍보를 위해 재원확보를 위한 전담기구인 기념사업본부는 올 상반기에 홍보주력기간으로 설정하고 지난달 4일 밝힌 기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총동창회 동문에게 4페이지 분량의 기부금기탁안내 팸플릿을 6월 총회이전에 우편배부

이같은 학의 홍보를 위해 재원확보를 위한 전담기구인 기념사업본부는 올 상반기에 홍보주력기간으로 설정하고 지난달 4일 밝힌 기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총동창회 동문에게 4페이지 분량의 기부금기탁안내 팸플릿을 6월 총회이전에 우편배부

지역개발대학원 등산대회 개최

경주캠퍼스 지역개발대학원(원장=김시배·경제학)은 오는 6일 오전10시 본교 대운동장을 출발하여 오봉산, 주사암, 부산성까지 등반하는 등산대회를 실시한다.

이같은 학의 홍보를 위해 재원확보를 위한 전담기구인 기념사업본부는 올 상반기에 홍보주력기간으로 설정하고 지난달 4일 밝힌 기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총동창회 동문에게 4페이지 분량의 기부금기탁안내 팸플릿을 6월 총회이전에 우편배부

이같은 학의 홍보를 위해 재원확보를 위한 전담기구인 기념사업본부는 올 상반기에 홍보주력기간으로 설정하고 지난달 4일 밝힌 기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총동창회 동문에게 4페이지 분량의 기부금기탁안내 팸플릿을 6월 총회이전에 우편배부

실례

○...중 좋아하는 학우들 때문에 우체국직원들의 불평이 날로 늘어가고 있어, 이윤인즉 밤늦게까지 술을 먹는 학우들이 우체국열린 자리에 토사물을 버려야 아침마다 직원들이 청소를 해야하는 불편이 있다고, 평소에도 그랬지만 대동제는 특히 심해 지니 학우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 데,

이제 한 우체국 직원 "이 토사물을 주인에게 반송(?)하는 길이 없겠느냐"며 푸념섞인 레변을 퍼가고...

기부하십시오

○...최근 본교의 재단 이사장 집권당 분직자로 있는

신도불이

○...에로부터 '신도불이'라고 하더니 우리에게 역시 우리머리가 최고인 모양.

올해 초 양식당을 취급하는 동국가들이 새봄에 문을 연 뒤 주로 이용하는 공과대학생들은 입맛이 안 맞는 것 같아, 이같은 결과를 전해들은 어떤 학우를 "외대머리라는 신도와 불이 사이(?)에 갇혀 먹는 것이지"라고 우스개소리를 하며

지역개발대학원 등산대회 개최

경주캠퍼스 지역개발대학원(원장=김시배·경제학)은 오는 6일 오전10시 본교 대운동장을 출발하여 오봉산, 주사암, 부산성까지 등반하는 등산대회를 실시한다.

지역개발대학원 등산대회 개최

경주캠퍼스 지역개발대학원(원장=김시배·경제학)은 오는 6일 오전10시 본교 대운동장을 출발하여 오봉산, 주사암, 부산성까지 등반하는 등산대회를 실시한다.

동해 낙산학사 아계 개장 공고

1. 개장기간: '93.7.1(목) - '93.8.18(수) (49일간)

2. 개장 일정표

회차	개장일정	회차	개장일정
1회	7.1 - 7.4	9회	7.25 - 7.28
2회	7.4 - 7.7	10회	7.28 - 7.31
3회	7.7 - 7.10	11회	7.31 - 8.3
4회	7.10 - 7.13	12회	8.3 - 8.6
5회	7.13 - 7.16	13회	8.6 - 8.9
6회	7.16 - 7.19	14회	8.9 - 8.12
7회	7.19 - 7.22	15회	8.12 - 8.15
8회	7.22 - 7.25	16회	8.15 - 8.18

3. 신청기간: '93.6.14(월) - '93.6.18(금)

4. 신청장소

가. 교직원실, 관제과 후생복지계(경주·관제과)
나. 학생실 학생과(경주·학생과)

5. 사용료

가. 교직원실 3박 4일당 ₩21,000
나. 학생실: 1인 1박당 ₩1,000

6. 전용실

가. 서울캠퍼스·교직원실 9실, 학생실 7실
나. 경주캠퍼스·교직원실 3실, 학생실 3실

관 리 처 장

공고

93-2학기 근로장학생 선발

1. 근무기간 '93.9~'94.2(6개월간)

2. 근무시간: 주당 20시간

3. 보 수: 기성회비+월10만원

4. 근무부서

도서관, 전자계산소, 비상대책과, 학적과, 취업과, 이과대학, 경상대학, 공과대학, 이과대학, 우체국, 외국어교육원, 계산고시학사, 여학생감실, 정각원, 불교문화연구원, 학생생활연구소.

5. 신청서교부 및 접수: '93.6.7(월)~ 6.11(금)

6. 신청장소: 학생처 장학과

7. 면접일시: '93.6.16(수)

8. 유의사항: 가. '93-2학기중 학적변동자(휴학등)는 선발제외함

나. 아간강과학생은 우선 선발함

1993.5.21

학 생 처 장

예비군 기본 교육 소집 공고

향년법 제6조에 의거 93년도 기본 교육을 아래와 같이 소집합니다.

— 가 려 —

1 교육대상 본교 예비군 전원(교직원 및 계약직, 대학원생)

2 교육대상 제외자 가 89년 1월1일 이후 전역자 나 89년1월1일 이후 동원훈련을 받은 자 다 89년 12월31일 이전(전역년차 이상)에 전역한 장기사병 이상 장부에 해당되는 자 라 비법 조항제

3 3회법정 교육일정

회차	학 과	1일차	2일차
1	교육사관	교육대상	교육대상
2	2월 2일	7.1	7.2
3	3월 3일	7.1	7.2
4	4월 4일	7.1	7.2
5	5월 5일	7.1	7.2
6	6월 6일	7.1	7.2
7	7월 7일	7.1	7.2
8	8월 8일	7.1	7.2

4 교육시간 08:00~17:00(지역 도착 불응으로 처리됨)

5 교육 세부규칙(전투, 전투, 전투 및 비전투는 과시 및 교육장서 참조)

6 교육대 중립(학생중, 주민등록증, 가사번호, 필기시험 소지하는 허가 사정(교육장서 참조))

7 학적사항 가 중립 기간중 국외거주, 입원, 입원(입원사)발생시 즉시 서류 제출

나 기간내에 교육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 수령증을 지참로 시명 남원학사기 배역이 통지서 수령시 유인용을 꼭 받아서서서 교육 일일정 규정을 준수하여 개인적 용이하여 교육유지 사정

다 교육 훈련 스티프 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은 학생은

93.6.23일까지 예군 연명서에 필히 수령함

8 소집 불응 훈련 12월31일 이전(전역년차 이상)에 전역한 입원사병, 비요령에 해당되는 예비군은 93.6.28.09.00 소집당으로 합함 것

동국대학교(경주)예비군 연대장

忠과 義를 중요시 하시던 스승

유도 공인8단의 무도인 북녘고향 그리워 눈시울 적시기도

"학생 거기 잠깐 서 봐"하면서 등 뒤에서 학업관 강의실 유리창문을 뒤흔드는 듯한 위압적인 부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발 밑에 뽀끈뽀끈 바르듯 땀이 마음대로 움직이지를 않았다. 무슨일이냐 하여 고개를 살피시더니 숨이 멎을 듯 돌아보니 우람하면서 눈부신 백발의 용태는 마치 압력에 약화된 부처님 형상과 같이 거대하였다.

1980년 초에 복학을 한 나는 아직 틀에 박힌 듯한 군생활의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흔적이 몸에 그대로였던 것으로 하루하루의 일과에 적응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마주 친 분이 바로 백원준 선생이었다. 백 선생의 손에는 당시 이용원에서 흔히 볼 수 있던 이용기가 들려져 있었다. 그때 그의 이유는 나중에 피해 당사자들인 선배들을 통하여 알 수 있었는데, 그 내용은 1980년대 초반에는 남학생들이 머리를 기르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었으며 선생께서는 공부하는 학생들이 머리에 신발을 쓰다 보면 공부를 멀리하게 되고 운동 또한 멀리하게 된다 하여 손수 학생들의 머리를 친절하게(?) 가다듬어 주셨던 것이다. 마치 고등학교 훈육주임선생처럼 말이다. 아마 선생께서 장년퇴임을 하지 않고도 아직 학교에 계시다면 요즘을 유니섹스 헤어스타일의 학생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다녔지 궁금하다.

선생의 학자는 자에게 元자(後者)를 쓰고 교향은 푸르른 두만강이 굽이쳐 흐르는 함경북도 회령에서 1921년에 출생하셨으며 어린시절 교육을 이곳에서 받았고 청년기에 뜻한 바가 있어 1939년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 그곳의 경도대학교에 입학, 해방후에 1943년까지 학업에 전념하시고 귀국하셨다. 6·25전쟁이 끝날 무렵 육군사관학교에서 일체의 압박과 전쟁의 고통을 경험하시고 강의의 시작하게 되었다. 우리가 학교에 재학할 때 만나던 출구강조실 총과 의 정신이 육군사관학교 강의를 하시면서 확립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 중에서 볼 수 있는 논문이 1955년 발표하신 '유도 수행과 심신의 관계'이다. 솔직히 그 내용을 직접 접하지는 못하였지만 논제에서 그런 점을 느낄 수 있지 않나 한다. 본교에 부임하시기 전에 벌써 선생께서는 불교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 같다. 1957년 발표하신 '불교사상

살의 두인걸 ㉚

백 원 준 교수편
.....<의력>
1965년 9월~1986년 2월 본교 체육교육과 교수로 재직, 체육관장, 체육실장 역임.



과 무도정신 '논어'가 그렇다고 할 수 있었다. 선생께서는 이 논문을 발표하시고 8년후에 본교에 부임하셨으니 선생과 불교와의 연이 불이 아니라 하느님 같은 상호간의 연에 의한 일이 아니라고 그 누구가 부인할 수 있었는가. 선생께서는 1963년까지 육군사관학교에서 강의를 하셨다. 예전 선생의 연구실 정면에서 육군사관학교강 강의의 기념제가 걸려있던 것이 새삼 생각난다.

지금처럼 초 여름의 날씨가 학기말이 다가오면 선생에 대한 또 한가지 새로운 기억이 떠오르는데, 내용은 아마 선생께서 강의하신 내용에 대한 학기말 시험을 치루는 날로 근엄한 표정에 뒷꿈을 지신 선생께서 강의실에 들어오셔서 주위를 둘러 보시더니 갑자기 친원 일나라 하시며 선생께서 지정하신 좌석에서 시험을 보라는 것이다. 순간 학생들의 표정은 지금의 사장바람이 한강 진행되면서 수사를 받는 예전 각료들의 쓸쓸하다. 이 장면보다 더 웃음을 자아내던 장면이 있는데 역시 선생께서 시험장 속에 들어오신 때의 이야기로, 강의실에 들어 오시더니 부처님과 같은 영화시중의 미소를 지으시며 갑자기 양복 안주머니에서 커다란 확대경(돋보기)을 꺼내서 마치 외국영화의 주인공인 형사 폴름처럼 우리들의 책상을 샅샅이 검사하시는 것이었다. 모두들 처음에는 당황하면서도 선생의 기상천외한 생각에 마음을 갈래를 저마다 보내고 "간절한 마음을 다스 플면서 학기말 시험을 치루는 것이 있다. 후에 선생께서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여쭈우셨던 "부정행위는 그 자체로 멋트하지 못한 부도덕한 행위지.

우리 체육인들은 항상 몸과 마음이 깨끗하고 청렴해야 돼'라고 말씀하시던 것이 기억난다. 그후 우리 학생들은 수업과 관련하여 예습,복습을 착실하게 하여 다른 과목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 선생께서는 1973년에 유도에 있어서는 달인의 경지로 일컬어 지는 공인8단에 이미 입문하였다. 이와 차이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유도에서도 달인(?)의 경지에 이르신 것으로 '술을 마시 뒤 속을 달래면서 마시고, 속을 달래 뒤 기쁨이 보다는 단념적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라'시며 다소 인정이 메말라 보일지 몰라도 술잔의 교환에 대하여 철저하게 반대를 하여오신 선생님이다. 이런 습관이 지켜졌으면 지금처럼 건강이나 건강과 환자의 수도 많이 늘어났을 것이다. 자기술은 자기가 직접, 자기주장에 맞게 마시라 시던 우리의 스승이자 아버지 같으신 분이다.

1980년대 중반에 세계각국의 메스컴에서 대서 특필하였던 생활습관 '남북이산가족 찾기운동' 프로젝트가 가족들의 상봉을 보이고 눈시울이 붉어져 혼났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며 철반을 향하여 한참이나 서 계시던 어른이었다. 이제는 이런 선생의 모습을,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없지만 우리 후학들의 마음속에는 선생의 이러한 모습은 영원히 남는다. 부디 오래 오래 시시어 교향의 푸르른 산과 푸르른 두만강을 다시 보실 수 있는 동행의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래된 사진첩에서 선생님과 우리 제작들이 찍은 사진을 한번 꺼내보고 다시 제작자에 감사한다.

조 경 진 <체육실장 재직>

TV다큐드라마의 고찰

문제성 소재 애초부터 배제 건강한 비판 정착은 시청자 몫

요즘 TV를 보면 색다른 흐름을 알 수 있다. '다큐드라마'라는 새로운 장르와 출연이 그것이다. 다큐멘터리란 현실자료를 재구성해 교훈적인 정보 전달효과를 의도하는 장르를 말하고 드라마는 현실을 재해석하여 극적 호소력을 발휘하는 허구를 뜻하는데 이 둘을 합친 것이 바로 '다큐드라마'이다.

현재 MBC-TV의 '제3공화국'과 KBS-1TV의 '다큐멘터리극장'이 다

문 학 단 신
공 연 안 내
○원시인의 직업병 연구...산업 사회의 발달과 함께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산업재해의 문제를 일반에 알려 이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닌 바로 나와 우리들의 문제이며 동시에 해결주체도 우리 모두임을 일깨워 주기 위한 공연. 공연수익금의 전액 '직업병 연구소' 및 '산업재해 병원' 건립을 위한 기금으로 쓰인다. 오는 19:20일 양일간 오후 3시, 6시, 연세대학교 대강당, 337-6871.

○썰레와 정미...부정거래비리로 얼룩진 어느 재벌 건설회사의 공사현장. 신한국강조라는 건설적 구호는 야랑곳 없이 계속 드러나 는 비리와 부정을 포집는 풍자. 코믹하게 그려지는 가난한 서민들의 애환과 사정. 오는 5일부터 7월20 일까지 오후4시30분, 7시30분. 까 망소극장. 776-2072.

전 시 회
○박목둘레개전진...80년대 초반 20대 원전 이후 현실정치와 모순과 절곡에 대한 통렬한 비판정신이 넘쳐나는 작품을 꾸준히 발표 해 오셨던 박목둘레개. 오는 4일부터 13일 까지. 신세계 갤러리. 310-1611

새로 나온 책
○산인인력자원개발...우리나라의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는 기업 인 력자원개발의 후진성을 극복하는 방 안으로 외국기업의 교육실태를 점검한다. <양서원 8천원>

큐드라마로 불리는 까닭도 거기 있 다. 그래서 다큐드라마의 성공(혹은 완성도)여부는 작품이 정하려는 메시 지가 과거의 역사적 오류에 대한 냉철한 비판정신에 근거하고 있는가, 또 인물 및 사건해석의 방향은 올바른 가에 달려있다.

먼저 '제3공화국'은 이전에 방영되 었던 '제1공화국' '제2공화국'과는 달리 극중에 실존인물들의 증언으로 극적 흥미를 높여주고, 자료화면의 삽입은 드라마화된 부분에 대한 신뢰 를 심어주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의 결정적인 문제 점은 스타시스템의 활용이다. 때문에 시청자들은 군사정부의 원용인 '박정 회 대인' '이진수'를 만나게 된다. 이것은 첫째로 탠트 이진수가 생 각하는 박정회판과 실제 박정회와 의 거리, 둘째로 시청자가 다른 프로 를 통해 받은 이진수에 대한 선입견

으로 인해 앞서 언급한 비판정신이 결실을 맺기도 전에 성급한 화해정신 으로 인도할 가능성이 있다. 다른 문제점은 지난 역사적 박정회 의 개인사적 조명을 통해서 보여질 위헌이다. 인간 박정회의 성장과정, 여성관과 애정관, 성격묘사는 극적 흥미를 유발하고 있으나 자칫 선정성 을 지적받을 염려가 있다. 그리고 정확한 현대사를 조명하고 과거인물에 대한 바른 역사적 평가를 시청자에게 심어주기 위해서는 자료 화면이나 증인들의 증언이 정당화되 기나 비화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선정되고 방영되어야 한다. 민간의 사인의 규명도 철저하여 권 당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 다.

한편, '다큐멘터리극장'은 광복이 후 현대사 중에서 왜곡되거나 의혹에 물린 역사를 추적해서 올바른 자리에

김으로 정의로운 미래를 지향한다는 의도로 기획되었다. 그러나, 야심찬 기획의도와는 달리 문제화될 소지가 있는 소재는 애초부터 배제된 느낌이 다. 소재분당의 차원이 아니라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소재들이라는 것이 다. 이는 KBS 편성표에서 보는 것처럼 '다큐멘터리 극장'이 오락극의 2TV와 국채성-홍보성 프로그램일색 인 1TV의 면죄부라는 주장에 공명하 는 것 밖에 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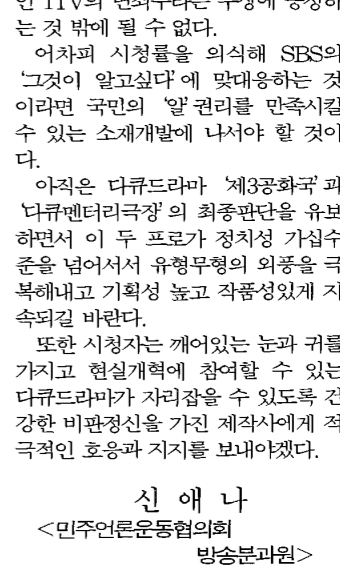
아직은 다큐드라마 '제3공화국'과 '다큐멘터리극장'의 최종편단을 유보 하면서 이 두 프로그램 정치성 가입수 준을 넘어서서 유행무형의 의풍을 극 북해내고 기획성 높고 작품성있게 지 속되길 바란다.

또한 시청자는 깨어있는 눈과 귀를 가지고 현실개혁에 참여할 수 있는 다큐드라마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건 강한 비판정신을 가진 제작자에게 적 당히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 다.

한편, '다큐멘터리극장'은 광복이 후 현대사 중에서 왜곡되거나 의혹에 물린 역사를 추적해서 올바른 자리에

신 에 나

<민주언론운동협의회 후원>
방송문화원 >



세 책 소 개 "위대한 슬픈 사람"

17세에 문단에 등단, 43년동안 시인과 평론가로서 작가생활을 해오던 본교 국어국문과 이형기교수가 '소설 석가모니'를 펴냈다. 본교 불교학과를 졸업한 이교수는, 석가모니의 일생을 소재로 한 소설은 당시만 대중에겐 불교교리에 대한 막연함이 늘 남아있음을 안타깝게 여 겨 집필을 결심했다고. 소설구상부터 집필까지 꼬박 1년 을 소비했다는 이교수는 경전에 있는 석가모니에 대한 에피소드 중, 가능한 현실성이 있는 자료만을 사용하기 위 해 인도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인도의 지도를 펴보고 직접 연구를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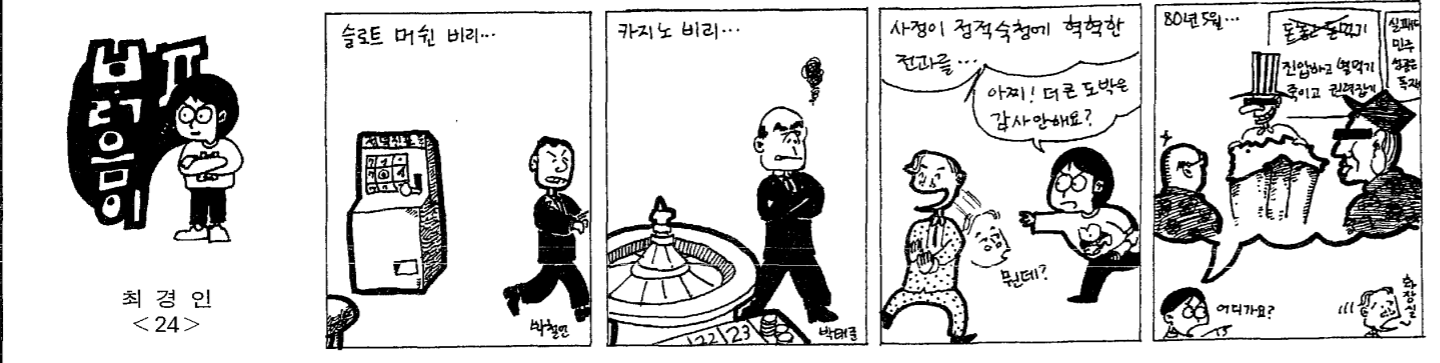
저자의 의도대로 '소설 석가모니'는 석가모니를 다룬 기존의 소설들에 서는 볼 수 없었던 면이 드러나 소 설이다. 이에 대해 이교수는 '기존의 소 설들이 석가모니에 대한 신앙심만으 로 석가모니를 초인으로서만 표현해 놓았지만 나는 석가모니를 '위대한

슬픈 사람'이라는 관점에 투영시켰습 니다'라고 말한다. 또한 이교수는 인간의 본질적 속성 이라 할 수 있는 고통과 슬픔을 누구 보다도 아프게 간직함 그대로 부처가 된 거기에 석가모니의 위대함이 있다 고 개인적 의견을 밝혔다. '소설 석가모니'는 '소년' '사랑' '길'을 묻는 출가시문, '고행'과 '성도', '죽림정사시대', '빛은 기원정사'로, 고 국에서의 걸실자, 바다로 흘러드는 강물, 정변 반역의 소용돌이, 사가죽 의 멸망, 최후의 여행 등 크게 10장 으로 나뉘어져 있다. 각 장에서는 특징적으로, 석가모니 의 인간적 면모를 부각시키는 등 시 가로 풀려나고 고행을 통해 부처가 되는 것, 석가모니가 된 후의 포교활동, 그리고 열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묘사되었다. '소설 석가모니'는 작가 가 사실을 근거로 쓰긴 했지만 경전 의 에피소드를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허구가 포함되기도 했다. 그러나 전 체적인 줄거리는 경전을 따르고 세부

한 동국의 품에 그들의 피로와 슬 픔을 감싸안기가 벅하다. 장례식 날 활박웃음을 머금은 고 남원, 안전선대원의 영정이 동국의 교정 을 죽 둘러보고 유해가 안지될 복 안산으로 떠났다. 그들은 동양으 로부터 떠나보내며 마지막 가는 동양의 영정과 동상에 걸려 고통받는 살결로 돌아온 그들을 맞이 위해 우리

동 국 사 랑

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학생들의 본관점거봉성으로 시발된 동국의 제 반문제들과 부정부패의혹으로 가득 찬 것은 그들이 죽은 동국의 유골을 갖고 돌아온 동국에 아직 병을 앓고 있는 학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 는데 말이다. <에베레스트산 을 만드 시 정복하고 돌아오셨다면



1993년도 한국경영대상 최우수기업상 수상

1993 대학생 하계연수 안내

풍요로운 사회, 그것은 우리 모두의 소망이며 꿈입니다. 1924년 창업이래 70여년을 인간존중의 삼양문화를 바탕으로 보다 풍요로운 사회건설에 한 몫을 담당해 온 우리 6천여 삼양가족 모두는 보다 밝은 미래사회의 주역인 대학생 여러분들과 이 뜨거운 여름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도 산학협동의 차원에서 마련하게 된 하계연수프로그램이 여러분의 학문의 깊이를 더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보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구 분	하계연수과정	이학연수과정
①연수 기간	1993. 7. 19(월)~7. 24(토) 1주간	1993. 7. 1(목)~7. 31(토) 주 4일(월, 화, 목, 금)강의
②모 집 인 원	40명	30명(15명씩 2class 운영)
③응 모 자 격	4년제 정규대학 재학생인 2, 3, 4학년 대학생	4년제 정규대학 재학생인 대학생으로 서류제거 거주자
④선 발 방 법	서류심사	이학수준테스트 (테스트 일정 및 장소: 지원서 접수시 안내)
⑤프 로 그 램 내 용	•삼양그룹 소개 •공정정책 •팀빌 사례연구 및 발표 •교양강좌 •일체감 조성훈련 •비즈니스 게임 •명성지 관광 •단합대회 등	•외국인 강사 초빙하여 영어회화 중심으로 이학강좌. 이학수준테스트 결과에 따라 반분정(교양/중급)AM 09:30~10:50, 11:00~12:20 •공정정책, 명성지관광, 단합대회 등
⑥접 수 기 간	1993. 6. 21(월)~6.30(수) 토요일은 12:00까지	1993. 6. 1(화)~6. 11(금) 토요일은 12:00까지
⑦합 격 자 방 표	지원서 접수시 안내	지원서 접수시 안내
⑧지 원 서 매 부 및 접 수 처	본사 인사부 인사과(성적증명서 1부 및 반명함판 사진1매 첨부, 본인이 직접 작성 제출)	본사 인사부 인사과(학생증 사본1부 및 반명함판 사진 1매 첨부, 본인이 직접 작성 제출)
⑨기 타	•참가자 전원에게 소정의 참가 담배권과 고급기념품 지급 •연수 참가비는 없음	•출석상 및 우수료상 시상 •수료자 전원에게 고급기념품 지급 •연수 참가비는 없음

* 이번 연수 프로그램 참가자 중 우수자는 산학 장학성으로 추천 선발할 계획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부 인사과로 문의 바랍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안국동 263, 우편번호: 110-725
TEL 740-7155, 7157

삼 양